



청소년 교사
무엇을, 왜, 어떻게: 회복에 관한 분석
 이번 일요일에 배도와 회복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보자.

58

청년 성인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여섯 가지 길

46

부모 및 초등학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가정의 밤이나
 함께 나누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짝 맞추기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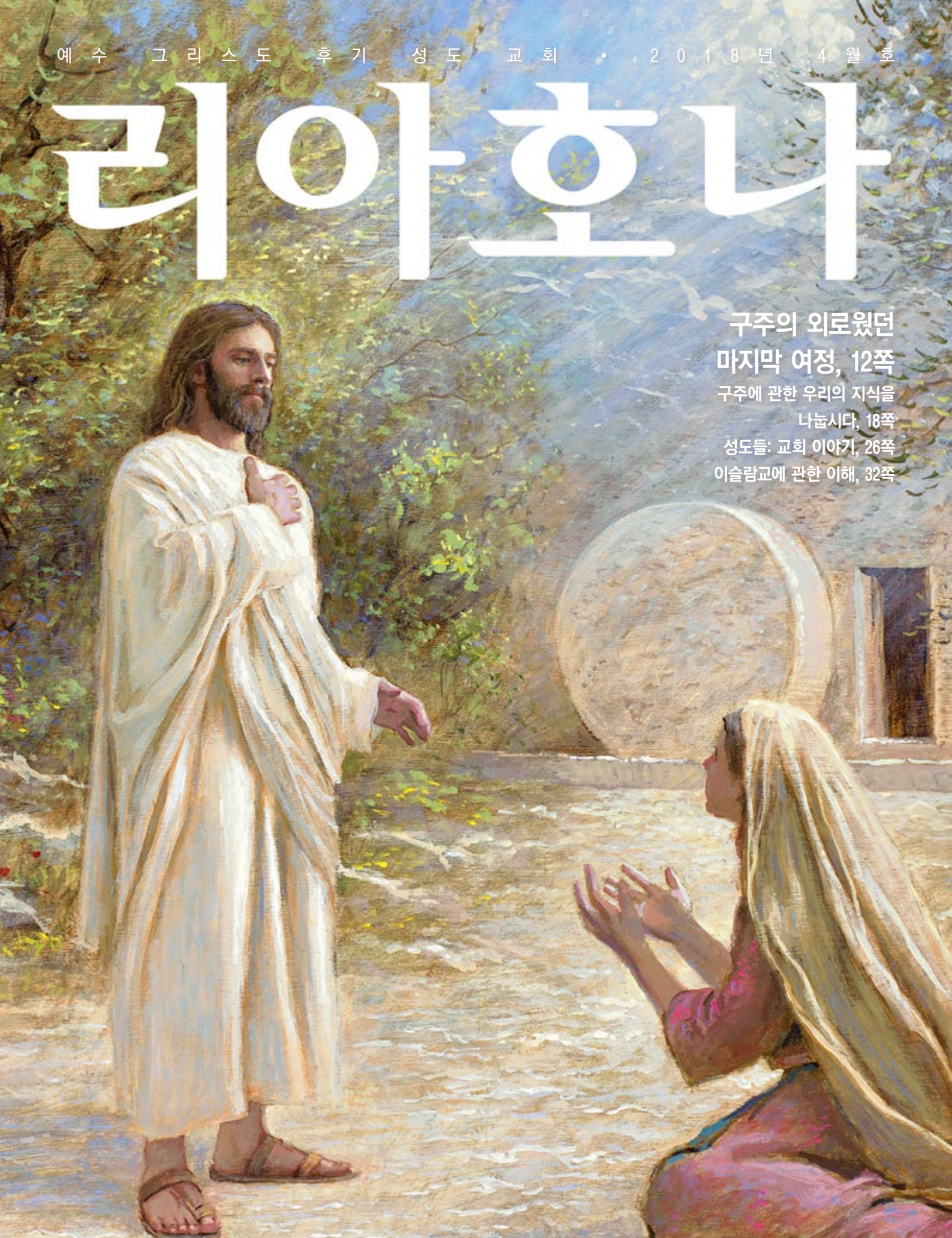
66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리아호나

구주의 외로웠던
마지막 여정, 12쪽
구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나눔시다, 18쪽
성도들: 교회 이야기, 26쪽
이슬람교에 관한 이해, 32쪽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상을 위한 봉사를
통해 ... 성약의 길에
남아 있으려는 여러분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제일회장단 메시지, 4쪽.



그리스도가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심,
미네르바 타이셔르트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자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는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제3니파이 17:7, 9)



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러셀 엠 넬슨 회장



표지
삽화: 존 맥노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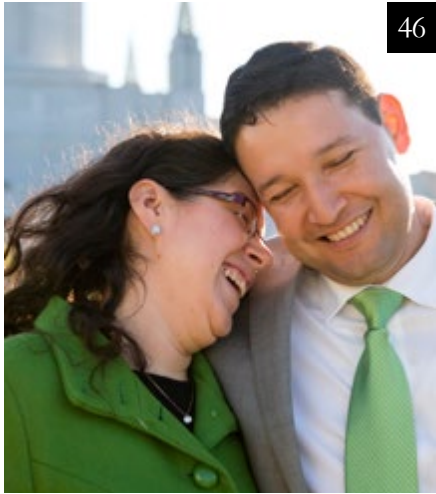
특집 기사

- 12 구주의 외로웠던 마지막 여정
차켈 워들레이
이 부활절 시기에, 구주의 구속
희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자.
- 18 구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나눔시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현대 기술의 도약으로 우리는 더
많은 방법을 활용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눌 수 있다.
- 26 성도들: 교회 이야기—제3장:금판
모로나이 천사가 방문한 후, 조셉은
처음으로 금판을 보았다.

- 32 이슬람교에 관한 이해
대니얼 시 피터슨
세계 제2대 종교에 관한 간략한
역사와 가르침 소개.

교회 본부 기사


- 8 연단에서: 바구니와 병
치에코 엔 오카자키
- 10 복음 고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44 신앙의 초상: 라코토말랄라 알폰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활의 첫
열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46

46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참되고 영속적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50 결혼, 돈, 그리고 신앙
선데이 치부이케 오바시
약혼자와 나는 결혼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기에,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조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나요?

52 질의응답: 신앙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54 기도: 간증과 회복의 열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조셉 스미스의 생애는 간증을 얻는 첫 번째 단계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준다.

58 무엇을, 왜, 어떻게: 회복에 관한 분석
페이스 서덜린 블랙허스트
경륜의 시대, 배도, 회복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2 구주를 알아 가며
세라 헨스
우리는 경전을 활용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며 더 큰 화평과 목적 의식을 느낄 수 있다.



54



68

66 회복이 내게 의미하는 것
짜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워 보세요!

68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69 놀라운 교훈
발레리 브이 코르돈 장로
주님을 신뢰하고 십일조를 바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축복해 주신다.

70 아부엘로의 구둣방
레이 골드럽
나쁜 선택을 고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72 빛을 비추라: 용기를 내서 친절을 베푸세요!
클라우디아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요.

74 미아가 될 뻔 했어요
케일 에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75 우리들 이야기

76 경전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킴 웹 리드

79 색칠하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2018년 4월호, 제55권 제4호
리아호나 1475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머링

심사도원: 엘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콕, 디 토드 크리스트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랜드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보니 에이치 코든,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쉐런 윙버그,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홈즈, 에릭 더들유 교수파취케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란시스코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켄슨, 샬러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츨,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롭나, 민디 셸루,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새라 시 키난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앨 무이, 에밀리 지예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런호스트

디자인 인턴: 아자이라 라모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앨 피터스

제작팀: 글렌 에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낄슨, 데렉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5호, 제55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4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운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모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라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r alproperty@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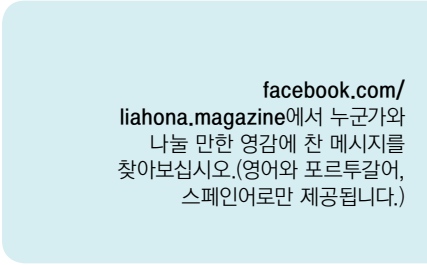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8 Vol. 42 No. 4.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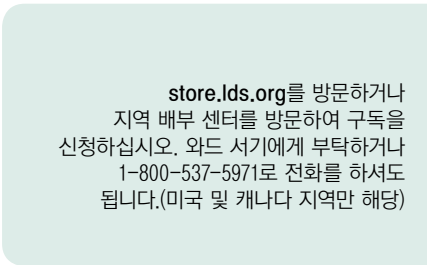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
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간중, 12, 62
- 사망, 10, 12, 26, 43, 80
- 정직, 70
- 결혼, 50
- 성신, 8, 42, 52, 66, 72
- 조셉 스미스, 26, 54, 58, 66
- 경전, 41, 52, 62, 76
- 성약, 4
- 종교, 32
- 교회 역사, 26, 54, 66
- 성전, 40, 75
- 친절, 72
- 교회 지도자, 4
- 소셜 미디어, 18
- 침례, 75
- 기도, 26, 52, 54, 74
- 속죄, 10, 12, 80
- 하나님 아버지, 12, 46, 52, 66, 74, 80
- 기술, 18
- 신앙, 46, 50, 52, 68
- 행복, 46
- 모범, 72, 76
- 십일조, 66, 69
- 회개, 70
- 물문경, 26, 54, 66
- 영감, 40, 42
- 회복, 26, 54, 58, 66
- 배도, 54, 58
- 예수 그리스도, 4, 10, 12, 18, 62, 66, 68, 79, 80
- 부활, 10, 12, 80
- 희생, 12, 44
- 부활절, 4, 10, 12, 80
- 전쟁, 52,



러셀 엠 넬슨 회장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편집자 주: 2018년 1월 14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2018년 1월 16일에 솔트레이크 성전 별관에서 진행된 실시간 방송에서 다음의 말씀을 전했다. 넬슨 회장은 이번 호에 이 말씀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나흘 전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안장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그분이 삶에서 보여 주신 위대함과 장엄함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틀 전에 현재 봉사 중인 모든 사도가 솔트레이크 성전 위층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하고, 제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모든 신권 열쇠를 소유한 형제들이 모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교회의 회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했을 때의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스럽고, 겸허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 뒤이어 저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좌들을 분별해 낼 책임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십이사도 중에 어떻게 단 두 명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1보좌와 제2보좌로서 가까이 저와 함께 할 봉사에 동참해 주신 델린 해리스 옥스 회장님과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 회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질로 해낼 수 있는 중대한 임무들을 이미 맡으셨습니다.

몬슨 회장의 보좌로서 보여 주신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의 훌륭한 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유능하셨으며, 헌신적으로, 또 영감에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이제

월례 제일회장단 메시지 게재 중단

이 기사는 본 잡지에 게재되는 마지막 제일회장단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제일회장단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교회 잡지와 LDS.org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사도로서 봉사하는 매일은 미래에 지게 될 더 큰 책임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각각 그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봉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임 사도이신 옥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직도 겸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일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으셨으므로, 교회 내의 절차에 따라 다음 서열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이 정원회 회장 대리로 봉사하실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이 진전되도록 십이사도와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이튿날 아침, 벤슨이라는 네 살짜리 소년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벤슨의 어머니께서 제 아내 웬디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벤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선지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용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처음으로 하는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신권이 있으니까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어린이들과 그들을 의롭게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기꺼이 봉사하시는 모든 부모와 교사, 회원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한다면, 모든 곳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장엄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회의 회장이 서거한 후, 다음으로 누가 부름을 받아 봉사할지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의구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선거나 선거 운동도 없으며, 오직 주님을 통해 신성한 계승의 계획이 차분히 진행될 뿐입니다.

사도로서 봉사하는 매일은 미래에 지게 될 더 큰 책임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갓 부름받은 사도가 선임 사도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봉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그는 교회의 모든 업무 영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 문화, 언어에 친숙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력의 계승 과정은 독특하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그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인간의 방법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전 다섯 분의 교회 회장님들 아래에서 십이사도로서 봉사했습니다. 각 회장님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응하시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를 인도하고 영감을 주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방방곡곡에 증거하도록 성임된 저희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이제 교회의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집에서 권능을 부여받고, 가족으로 인봉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맺는 성약은 여러분의 삶과 결혼 및 가족, 그리고 대적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굳건히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상을 위한 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릴 것이며, 성약의 길에 남아 있으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나 계시다면, 제 마음속의 모든 소망을 담아 부디 돌아오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와 시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약의 길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며, 모두가 그분의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키워 온 여러분에 대한 저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성한 임무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이 준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업을 이끌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이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이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분들께, 그리고 여러분께 제 생애에 남은 모든 숨결을 바쳐 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바구니와 병

치에코 엔 오카자키



오카자키 자매에 대하여

치에코 니시무라

오카자키(1926~2011) 자매는 미국 하와이에서 일본 혈통의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 무렵에 오카자키 자매는 자신의 복잡한 인종 및 문화적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한 후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오카자키 자매와 그녀의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일본 물건들을 모두 모아 태워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본에 가 본 적도 없고 나의 내면을 보면 일본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어. 나의 눈과 피부, 머리카락 모두가 내가 일본 사람임을 보여 주는 걸.'¹

오카자키 자매는 평생 인종차별에 맞서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미국 내 반일본 정서가 여전히 팽배하던 시절에 오카자키 자매는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는 자녀를 맡기지 않겠다고 나선 어머니들이 세 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도 오카자키 자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²

오카자키 자매는 본부 청년, 본부 초등학교, 본부 상호부조회 등 모든 여성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서 봉사한 최초의 여성이었다.³

본 메시지는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오카자키 자매가 단합과 다양성을 주제로 전한 말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새롭게 연재되는 본 기사는 [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말씀을 조명한다. 발췌한 내용은 churchhistorianspress.org/at-the-pulpit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 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다양성과 차이점을 주셨으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즉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서로에게 배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담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문화마다 그것을 담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타에 사는 한 주부가 눈이 내리는 겨울 동안 가족에게 먹이려고 만든 복숭아 통조림 한 병이 있습니다. 하와이 주부들은 과일 병조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며칠간 먹을 과일을 따서 이런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망고와 바나나와 파인에플과 파파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 년 내내 과일이 열리는 기후에 사는 폴리네시아의 한 주부가 가족을 먹이려고 판 것입니다.

바구니와 병은 서로 다른

용기이지만, 내용물은 똑같이 가족을 먹일 과일입니다. 그럼 병은 맛고 바구니는 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각각의 문화와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것들입니다. 둘 다 과일이라는 내용물을 담아 두기에 적절합니다.

그럼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22~23) 상호부조회의 자매애와 신권 정원회의 형제애, 그리고 성찬을 취하기 위해 모이는 경건한 시간을 통해, 영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타이베이나 통가에서 열린건, 신권 정원회가 몬테나나 멕시코에서 열린건, 성찬식이 피지나 필리핀에서 열린건 상관없습니다.

... 제가 ...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부름 받았을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이 회장단에 특별함을 부여하실 겁니다. 자매님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계시는 모든 자매님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매님을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의
표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회장님은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혀가
폴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⁴

… [저는 다른 지역에서 말씀할 때,
영이 제 말을 그들의 마음에 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열매”가 그들의 사랑과 기쁨, 신앙을
다시 저에게 전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복숭아든 파파야든, 여러분이 그것을
병에 담든, 바구니에 담든, 사랑으로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소서.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성령 인도하시어”,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4, 95쪽.
2.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내 양을 먹이라”,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4쪽.
3. “Obituary: Okazaki, Chieko,” *Deseret News*, Aug. 7, 2011.
4. See Prince, “There Is Always a Struggle,” 121. Gordon B. Hinckley was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when Sister Okazaki was called in 1990.
5.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슬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사슬을 힘차게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인류의 구주로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영광 육신이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되는 것입니다. ...

최상의 상태로 사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으며, 지상에서 빈번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부담도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

구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은 ...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의인과 악인을 위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행위로 그분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자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

땅은 진동하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노렸던 악한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

그날,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탄에 ...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

사도들은 황폐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들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악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

그날은 ... 슬픔으로 가득 찬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암울했던 날이 바로 그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사슬을 힘차게 끊으셨기 때문에, 절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인류의 구주로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순식간에, 한없이 흐르던 눈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기도를 읊조리던 입술이 이제는 경이로운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망은 단지 새롭고도 놀라운 존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대한 증거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주 자체가 파괴되고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들, 즉 우리만의
 금요일들이 올 것입니다. ...

하지만 저는 사망을 이기신 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탄
 속에서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 아무리 비통할지라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이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구대륙과 신대륙의
 무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구주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

부활 후, 제자들은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돌며
 ... 살아 계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찬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 사망의
 순간에 자신들의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

구주의 삶과 영원한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신
 메시아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받는 성스러운
 의식 덕분에, 일시적인 필멸의 생을
 떠나는 것은 영원의 끈으로 묶인 관계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

우리가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받게 되는 값진
 은사들과 우리 모두가 무덤을 깨치고
 승리로 부활할 밝은 날의 약속을
 이해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금요일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

200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구주의 외로웠던 마지막 여정

차켈 워틀레이
교회 잡지

필 열의 생애 동안 구주께서는 많은 여행을 하셨다. 갓난아기였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광야에서도 40일 간의 여정을 보내셨으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축복하기 위해 성역 기간과 그의 여러 시기에 걸쳐 많은 도시와 마을, 가정을 방문하셨다. 그러나 구주께서 홀로 겪으셔야만 했던 한 여정이 있다. 그것은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었다.



Simon Dewey

“부활절 일요일에,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7쪽.



비할 데 없는 고통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일을 ...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마시고,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신 일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육신으로나
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고통받으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고난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화개하는 영혼을 죄의 고통과
형벌로부터 구속했으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임하도록 해 주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죄의 무게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 땅에 엎드려 떨며, 가능하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까지
하셨음을 압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겟세마네의 힘”,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11쪽, 번역 수정.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비록 우리가 늘 인지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분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서부터 가장 극심한 만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적 고통을 이해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울, 불안, 중독, 고독, 비통과 같은 어둡고
절망적인 정신적 고통을 몸소 느끼셨다. 구주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인간의 모든 영적
상처를 전부 다 직접 느끼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이해 못 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각자의 짐을 느끼고 짊어져 보셨기에,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십니다.”(*“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0쪽)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그** 분이 하신 일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으로 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께서는 신성한 속성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도 죄가 없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으로 인해 육체적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또한 지니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차가운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또한,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평화로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0쪽, 번역 수정.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시어 사망의 줄을 푸셨으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분은 그 벽차고 불가능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돌이키지 않으셨다

구주는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의 상한 몸이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자비하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비웃었습니다. …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은 꺼져 갔습니다. 구주는 바싹 말라버린 입술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시려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은 빌린 무덤에 신속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9쪽, 번역 수정.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구주께서는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독, 절망을 겪으셨으나 지상에서의 여정을 품위 있게 견디고 완수하셨다.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며 부탁까지 하셨다. 그분의 완전한 모범에 힘입어,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구주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

“**저**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 베드로와 십이사도 일행, 사랑스럽고 순수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간증한 많은 사람의 증언을 믿습니다. 또한, 몰몬경에 나오는 많은 간증 중에서도 풍요 땅에 모였던 이름 없는 군중들에게 전한 사도 니파이의 간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는 살아 계시다 … 이는 우리가 실로 … 그를 보았[음이니라]’라는 위대한 간증을 선포했던,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간증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구속주임을 간증드리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뒤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얻어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 간구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4쪽.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비록 우리는 완전한 육신을 입은 부활하신 구속주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다. 타인에게 봉사하고자 마음과 손길을 전하고, 모두에게 온화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며,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된다.

우리는 홀로 걸을 필요가 없다

“이 부활절 절기에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외로운 길을 철저히 홀로 걸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고독한 여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여정의 축소판을 걸을 때 훌륭한 동반자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보살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변함 없는 동반, 비할 데 없는 성신의 은사, 하늘의 천사들, 휘장 양편의 가족들, 선지자와 사도들, 교사, 지도자,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복음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의 지상 생활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동반자들이 함께합니다. 갈보리 동산에서 울려 퍼진 것은, 간혹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 항상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렀고 완전히 홀로서야 했을 때에도 그분은 분명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8쪽, 번역 수정.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이번 부활절에 구주의 외로웠던 마지막 여정을 기억하도록 한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시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흠 없이 되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여셨다. 그분의 완전한 모범에서 배움을 얻고, 생각과 마음속에서 늘 그분을 잊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 마지막 여정을 철저히 홀로 견디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무한하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과 희망을 주신다. 그분이 마련하신 속죄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사를 받았다. ■

유월절이 부활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한다. lds.org/go/41817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나눔시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이며,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입니다.
여러분은
기술이라는 새롭고
멋진 수단을 통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옛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기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마가복음 16:15)

옛 선지자 니파이는 이 임무와 메시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모사이야서에는 몰몬경의 옛 선지자 베냐민 왕이 전국에 있는 백성을 성전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탑을 하나 세우게 하여 그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시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전했습니다.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모사이야서 3:20)

“구주에 대한 지식”

우리가 가정에서 소중히 다루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구주에 대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인류의 눈이 뜨이고 기술 발전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시대가 열리고 통신 장비가 생겨나면서 베냐민 왕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교리와 성약 107:23) 부름받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교회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위원회에서 특정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활용 가능한 최신 기술을 통해 “구주에 대한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지리라는 예언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은 전 세계 방송의 미래를 예고하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발명품들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쇄술의 발전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명 덕분에 회복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중 몇 가지는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첫번째 시현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즉 교회가 조직되기 한 달 전에 물문경 5,00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쇄된 물문경은 1억 7,500만 부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방송 5,000회를 앞두고 있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일요일 아침마다 듣거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29년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연차 대회의 텔레비전 방송은 194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966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축복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인류는 전례 없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이 시대는 무한한 위험과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¹

1974년,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앞날을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셔서 많은 ... 위성을 주셨습니다. 위성은 하늘 높은 곳에서 거의 모든 지표면에 방송 신호를 보냅니다. ... 틀림없이, 이 위성은 전 세계 방송의 미래를 예고하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발명품들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²

오늘날 인터넷에 뒤어난 통신 및 미디어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베냐민 왕과 맥케이 회장님, 김볼 회장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1830



물문경 5,000부가 인쇄되다

1850

1870

1890

음악과 진리의 말씀: 1929년에 시작해, 이제 방송 5,000회를 앞두고 있다.

1950

1974



2010

오늘날: 물문경 1억 7,500만 부가 인쇄되다

2030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이러한 기술이 채택되는 데에는 분명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DS.org와 Mormon.org

1996년, 교회는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는 도구로 인터넷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교회 회원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지원하는 260여 개의 사이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친숙한 두 웹사이트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에 만들어진 LDS.org로, 현재 매년 2천 4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방문자와 매주 평균 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교재와 이전 연차 대회 말씀을 이곳에서 찾아봅니다.

두 번째는 Mormon.org로, 이 웹사이트는 교회 회원이 아닌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천 육백만 명이 넘는 각양각색의 방문자가 이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려면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명과 더불어, 휴대용 기기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많은 부분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즉 “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한 첫 번째 앱은 200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구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앱 콘텐츠를 다 설명해 드리는 않겠지만, 다음 앱들은 여러분에게도 친숙할 것입니다.

- 복음 자료실
- LDS 음악



- 몰몬 채널
 - LDS 도구
 - 패밀리 트리
- 이러한 앱은 매주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수백만 번 정도 이용합니다.

소셜 미디어

의미상 소셜 미디어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로, 개인과 조직이 가상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아이디어, 기타 표현 형식을 보고,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략 2010년부터 교회는 “구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소셜 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빠른 속도를 가진 강력한 디지털 소통 도구입니다.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 소셜 미디어에 비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익숙해지거나 친숙해지는 순간,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눈에 띄게 멋지거나 더 좋은 플랫폼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이백만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친구들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발명과 더불어, 휴대용 기기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비행기 조종실에서 손자 에릭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습니다!

2.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 사이트입니다.
3. 핀터레스트는 가상 게시판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핀”이라고 부르는 시각 이미지를 게시판에 붙여 놓습니다. 영감을 주는 문구나 소원이 담긴 사진 같은 이미지들입니다.
4.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트윗”이라고 하는 140자의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읽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5. 스냅챗은 사진 및 짧은 영상이 즉시, 혹은 24시간 안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제도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도 여러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몇 년 전에 하신 우울증에 관한 영감에 찬 연차 대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³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짧은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만 조회 수 2백만을 돌파했고, 수천 건의 좋아요, 공유,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⁴

인스타그램

2016년 8월,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테지만) 비행기 조종실에서 손자 에릭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습니다.⁵ 수천 명이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았고, 수도 없이 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교회는 또한 2017년 11월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자매들의 선교 사업에 관한 한 청년 독신 여성의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특별한 게시물은 조회수가 112,000을 넘었습니다.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에서는 LDS.org 계정에 수백 개의 핀이 있으며, 회원 개인 계정에는 그보다 더 많은 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이 과거와 현재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가르침이 담긴 핀 중에는 “삶에서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핀이 있습니다.⁶

트위터

작년 부활절 아침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공유하신 트윗은 조회 수 2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라는(마태복음 28:6) 짧고 간단한 메시지에도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스냅챗

마지막으로, 몬슨 회장의 제일회장단 메시지 중 하나를 공유하는 사진과 글이 얼마 전 스냅챗에 올라왔습니다.

신기술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이러한 신기술이 가진 모든 장점을 칭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 드렸으니,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앱 사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상호 소통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젊은이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와 관련된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설물 중독이 사회에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회원과 가족들조차도 그 부정적인 영향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추가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의 손길은 사실 청년들과 밀레니얼 세대인 어머니 및 아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위험을 “이상화된 현실”과 “자기 소모적인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은 대체로 삶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종종 비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실내 장식, 멋진 휴양지, 공을 들인 음식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으로 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은 많은 사람이 이 이상화된 가상 현실만큼 자신들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는 “팬케이크”로 만든 생일 케이크 핀을 보고 영감을 받아 같은 케이크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지나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핀터레스트 실패작”(팬케이크 사진 참조)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식의 자극을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이상화된 현실이 담긴 이미지를 보게 되더라도 거기서 웃을 거리를 더 많이 찾고, 덜 낙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표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과거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고린도후서 10:12)

최근에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데븐 코니시 장로님도 역시 이런 시의적절한 권고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거나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말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립니다. 비교해야 한다면, 우리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에, 더 나아가 이루려 하는 미래의 모습에 견주어 봅시다.”⁷

오래전, 소셜 미디어가 인기를 끌기 전에 찍은 이 가족사진(다음 페이지 참조)에 숨겨진 저희 가족의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을 것이고, 멋지게 색깔을 맞춰 옷을 입은 사랑스럽고 예의 바른 네 아들과 평화롭게 찍은 가족사진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저는 아직도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기억이 납니다. “게리, 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린 여기 사진관 야외 스튜디오에 있는데, 촬영 준비는 다 됐어요. 애들 옷 입히고, 챙기고, 준비하느라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당신, 거의 다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화된 가상 현실만큼 자신들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낙담합니다.



이상화된 현실



자기 소모적인 비교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크레이그는 팔을 교묘하게
놓아 잔디 얼룩을 감추고
있습니다.

올어서 빨개진
셋째 아들의 눈은
20분을 기다린 끝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일의 핏자국은

셔츠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손을 전략적으로 하얀 운동용
양말목 부분에 올려서 모든 게 조화로워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달이 난 것은 다 제가 늦게 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저희 가족의 사진을 보고
“왜 우리는 이 가족처럼 그림 같은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지?”라고 한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들 실상을 아실 테니 말입니다!

소셜 미디어와 선교 사업

이제 여러분은 이상화된 현실과 자기 소모적인
비교 등 소셜 미디어의 해악 및 위험 요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사부는 2017년에 소셜 미디어를 선교 사업에
활용할 실질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디지털 자원을
강력하고, 쉽고, 단순하게, 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영감 받은 방법으로 기술을 사용할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사실, 저는 깜빡 잊고 아직
사무실을 떠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30분이나
늦었고, 그동안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서 거의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구요? 제 큰아들은 스튜디오 뜰을
뛰어다니다가 사과나무를 발견하고는 사과 몇 개를
따서 동생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가
던진 사과에 제 셋째 아들은 등을 맞으며 고꾸라졌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 아들 브라이언은 의자에
앉았는데, 그 바람에 바지가 조금 올라갔고,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은 브라이언의 양말이 아내가 꺼내 준
교회용 양말이 아니라 하얀 운동용 양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갈 때 신는
양말을 신지 않았니?”

브라이언은 “전 그 양말을 안 좋아해요,
따갑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브라이언과 그 이야기를 하는 사이, 두
살 난 제 아들은 뜰을 뛰어다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서 코피가 났습니다. 카일의 하얀 터틀넥 셔츠는
코피가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사진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터틀넥 셔츠를 돌려 입혀서 코피가 묻은 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첫째 아들은 뛰어다니며 사과를
던지다 넘어져서 무릎 부분에 잔디 얼룩이 커다랗게

세대에게 기술을 의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의롭지 않은 기술 활용과 그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술에서 얻는 혜택이 기술에서 비롯되는 위험보다 더 클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메시지를 숙고하며 기도를 거듭하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노래와 그 노래의 단순한 다음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이며,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입니다. 여러분은 기술이라는 새롭고 멋진 수단을 활용하여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찬 시대의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우리 시대를 위한 지침을 줍니다.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모사야서 3:20)

또한 우리에게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와 상황에 맞는 말씀과 지침을 줍니다.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아울러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찬 시대의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후기에 회복된 복음이 실재함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이러한 영감 받은 도구들을 적절히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⁹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전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시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권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구주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합시다. 이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용기를 내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블로그, 핀, 좋아요 누르기, 포스팅, 친구 맺기, 트윗, 스냅, 웹사이트 연결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 친구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광스럽게 하고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구주에 대한 지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2017년 5월 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전한 말씀, “The Knowledge of a Savior[구주에 관한 지식]”에서 발췌함.

주

1.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Oct. 1966, 4.
2. Spencer W. Kimball, “When the World Will Be Converted,” *Ensign*, Oct. 1974, 11, 10.
3.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40~42쪽 참조.
4. 제프리 알 홀런드, “물론 메시지: 깨진 그릇과 같으니,” 2016년 6월 20일, mormonnewsroom.org 참조.
5. “President Uchtdorf Relates Flying to Gospel in Post and Video with Grandson,” Sept. 30, 2016, LDS.org 참조.
6.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1월호, 4쪽.
7. 제이 데븐 코니쉬,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리야호나*, 2016년 11월호, 33쪽.
8. “How Lovely Are the Messengers,” hymnary.org.
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 *리야호나*, 2015년 8월호, 50쪽; 또한 David A. Bednar, “Sweep the Earth as with a Flood” (video), LDS.org 참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구주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합시다.





제 3 장

금판

다음은 교회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 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3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로 인쇄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은 제1권이 14개 언어로 출간되는 올해 말까지 매달 리아호나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 장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제2장은 1820년 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본 조셉의 첫번째 시현을 묘사한다.

3년 이 가고, 세 번의 가을걷이가 지나갔다. 조셉은 거의 매일 땅을 일구고 밭을 갈며 지냈고, 매년 가족 농장 비용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샅일을 했다. 그리고 일만 하기에 시간도 부족했기에 학교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셉은 대체로 가족들이나 다른 인부들과 어울렸다.

조셉과 친구들은 어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셉은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 영광스러운 시현으로 모든 질문이 응답된 것도 아니었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¹ 그래서 조셉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며, 다른 교회에 속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나 돌멩이 같은 사물을 통해 지식을 밝혀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전에 모세와 아론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이다.² 이웃을 도와 우물을 파던 어느 날, 조셉은 우연히 땅속 깊은 곳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종종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특별한 돌 같은 것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조셉은 혹시 이 돌멩이도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멩이를 들여다보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조셉의 눈에 보였다.³

조셉이 이 돌을 사용하는 은사를 보이자 가족들은 놀라워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⁴ 그러나 그런 선견자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에 대해 염려했다. 이제 더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본 후에 느꼈던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고 불완전하여 책망을 받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⁵

1823년 9월 21일, 열일곱 살이 된 조셉은 그날, 형들과 같이 쓰는 다락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은 여러 교회와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조셉도 그 이야기를 듣느라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집 안이 고요했다.⁶

조셉은 깜깜한 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청했다. 그는 하늘의 천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천사에게서 자신이 주님 앞에 서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숲에서 약속받았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었다. 조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으므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다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다.

그때, 희미한 빛이 침대 곁으로 비쳐 들어왔다. 빛은 점점 경계를 넓혀 다락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췄다. 고개를 드니, 공중에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천사는 손뭉과 발뭉까지 늘어진

희고 매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서 빛이 퍼져 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이 났다.

조셉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셉을 용서하셨으며, 이제 그분께서는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고 전했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고 말했다.⁷

천사는 근방의 산에 묻혀 있는 금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판에는 한때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백성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금판은 고대 백성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방문하시어 복음의 충만함을 가르치신 기사가 담긴 기록이었다.⁸ 모로나이는 금판과 함께 묻혀 있는 선견자의 돌 두 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조셉은 이 돌들을 우림과 둠밈, 또는 해석기라고 불렀다. 그 돌들은 조셉이 금판의 기록을 번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선견자의 돌은 투명한 돌멩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가슴판에 연결된 형태라고 모로나이는 말했다.⁹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성경의 이사야, 요엘, 말라기, 사도행전 등에 등장하는 예언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대에 주신 성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⁰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조셉을 선택하셨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면 조셉은 금판의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¹¹

천사는 방을 떠나기 전에 조셉에게 판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명하며, 지시 없이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했다. 말을 마친 모로나이는 빛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¹²

조셉은 자리에 누운 채 시현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 방 안에 빛이 들어차면서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천사는 앞서 전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는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서, 세 번째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조셉아, 판을 얻으려 할 때 네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지고, 모든 형태의 악이 마음에 밀려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지니

조심할지이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조셉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아버지에게 가서 시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 “네 부친은 네가 하는 말을 모두 믿을 것이니라.”¹³

아침이 밝았을 때, 조셉은 아버지가 시현과 천사 이야기를 믿어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로나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와 형 앨빈과 함께 집 근처 들판으로 나가 오전 내내 추수를 도왔다.

조셉은 일이 힘에 부쳤다. 높다랗게 자란 곡식을 낮으로 베면서 앨빈 형과 속도를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찾아와 밤새 한숨도 못 잔 데다 고대의 기록과 그것이 묻혀 있다는 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오래가지 못해 조셉은 손을 놓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앨빈이 이렇게 말했다. “조셉, 그렇게 머뭇거리서는 안 돼. 어서 일을 마쳐야지.”¹⁴

조셉은 더 열심히, 더 빨리 낫질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형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한참 뒤, 파리한 얼굴로 손을 멈추고 서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 조셉 일세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는 아들이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조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운이 빠진 몸으로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그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누운 채 숨을 가다듬던 조셉의 눈앞에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공중에 서서 빛에 둘러싸인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네 부친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조셉은 아버지가 믿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다고 대답했다. “네 부친은 믿을 것이다.” 모로나이는 조셉을 안심시키고 지난밤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¹⁵

아들이 천사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셉 일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현이니 그 말씀대로 따르거라.”라고 말했다.¹⁶

조셉은 곧바로 산으로 달려갔다. 지난밤 모로나이가 판이 묻힌 장소를 시현으로 보여 주었기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근방에서 제일 큰 그 산은 조셉의 집에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다. 판은 산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조셉을 선택하셨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면
조셉은 금판의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팔마이라 인근에 있는 쿠모라 산은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약 4.8 km 거리에 있다. 모로나이가 시현으로 보여 주었기에, 조셉은 물론경의 판이 묻혀 있는 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서쪽 기슭의 크고 둥근 바위 아래에 묻혀 있었다.

조셉은 걸어가면서 그 판을 생각했다. 그것이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다. 조셉은 수호신이 지킨다는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모로나리와 그가 말한 판은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다. 모로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선견자에게 안전하게 기록을 전달하도록 임명하신 하늘의 사자였다. 그리고 그 판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가난에서 건져 줄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조셉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¹⁷

산에 이르러 시현에서 본 장소를 찾아낸 조셉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바위의 가장자리가 드러났다. 조셉은 큰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렛대로 삼아 바위를 들어 옆으로 밀어냈다.¹⁸

얇게 구실을 하던 바위 밑에는 벽면과 바닥이 돌로 된 상자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금판과 선견자의 돌, 가슴판이 있었다.¹⁹ 고대 문자가 뿔뿔이 기록된 금판은 세 개의 고리로 철해져 있었다. 각 낱장은 가로가 15센티미터, 세로는 20센티미터였고, 각각 얇은 판으로 되어 있었다. 또, 일부 기록은 읽지 못하게 봉해져 있었다.²⁰

조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금판의 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판에 손을 댄 찰나, 큰 충격이 조셉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셉은 얼른 손을

뗐다가 다시 판을 잡으려고 두 번 더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몸에 충격이 가해졌다.

조셉은 소리쳤다. “왜 잡을 수 없는 거지?”

그러자 바로 옆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돌아보니, 모로나이가 있었다. 조셉은 펄떡 지난 밤 메시지가 떠올랐고,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셉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생각과 영혼에 성령이 느껴졌다.

모로나이가 말했다. “보라.” 조셉의 눈앞에 또 다른 시현이 펼쳐졌고, 무수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사탄의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말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선과 악, 거룩한 것과 불순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의 권능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그 두 가지 힘을 깨닫고 절대 사악한 것에 물들거나 무릎 꿇지 말지어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생각을 굳건히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느니라. 이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이득과 부를 쌓을 목적으로 이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신앙의 기도로써 봉인되었노라.”²²

조셉은 언제 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년 구월 스물두째 날에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적임자인가요?” 조셉이 물었다.

“네 큰형이니라.”²³

어릴 적부터 조셉은 만형인 앨빈을 의지했다. 그때 앨빈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따로 자기 농장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늙어 가는 부모님이 터전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농장에 남아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은 진중하고 부지런한 앨빈 형을 깊이 사랑하며 가까이 따랐다.²⁴

모로나이는 조셉이 주님께서 판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형인 앨빈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조셉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이 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모두들 그가 산에서 무엇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조셉은 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녹초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본 앨빈이 만류했다.

“이제 모두 잘 시간이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지.” 내일도 시간은 많을 테니 사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들어도 되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일찍 차려 주시면 밤에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네 얘기를 듣자.”²⁵

이튿날 저녁, 조셉은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앨빈은 동생의 말을 믿었다. 집안의 장남인 앨빈은 부모님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남동생들과 함께 가족이 편하게 생활할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 가족은 조셉을 통해 영적인 평안도 얻게 된 듯했다. 매일 밤 조셉은 금판과 거기에 기록을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족들은 조셉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가족들 모두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²⁶

모로나이가 다녀간 지 두 달여가 되어 가던 어느 가을날 아침, 앨빈이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앨빈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파했고, 아버지에게 사람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왕진을 온 의사가 엄청난 양의 하얀 가루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은 앨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앨빈은 고통 속에서 여러 날을 침상에서 보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조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해.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모든 명에 따르렴.”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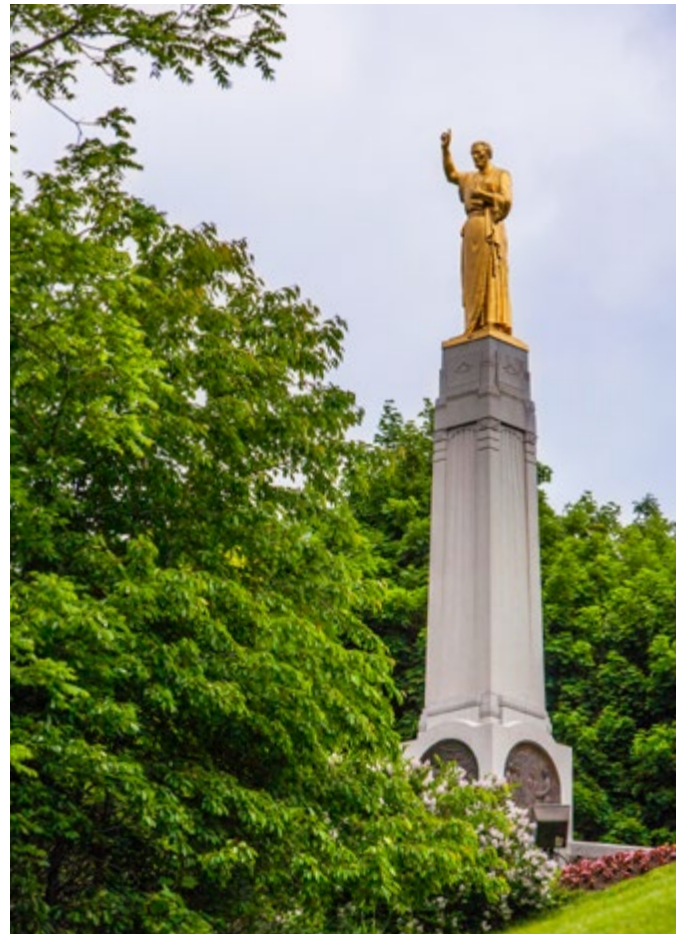
앨빈은 곧 숨을 거뒀다. 무거운 슬픔이 집 안에 내려앉았다. 장례를 치르던 날, 목사는 앨빈이 지옥에 갔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았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구원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을 경고할 목적으로 앨빈의 죽음을 이용했다. 조셉 일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아들이 훌륭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벌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²⁸

앨빈의 죽음과 함께 금판에 대한 대화도 끝이 났다. 앨빈은 생전에 조셉의 신성한 부름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기에, 금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앨빈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건디기 힘든 일이었다.

조셉도 앨빈을 그리워하며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힘겹게 받아들였다. 만형의 힘과 지혜에 기대어 기록을 얻고자 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²⁹

조셉이 1823년 9월 22일에 물문경 판을 처음 보고 정확히 4년 후에 그 판을 받은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쿠모라 산 정상에 모로나이상이 세워졌다.



마침내, 다시 산에 갈 날이 되었다. 조셉은 홀로 걸음을 옮겼다. 조셉은 형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을 맡기실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형이 말한 대로, 그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로나이는 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말해 주었다. 천사는 말했다. “판을 손에 들면 곧장 집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야 하느니라.”³⁰

산에 오른 조셉은 다시 한 번 바위를 치워 내고 상자에 손을 뻗어 금판을 꺼냈다. 그때 문득, 자리를 뜨기 전에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은 판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상자를 덮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 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덜컥 겁이 난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금판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달라고 애원했다.

곧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또 지시를 어겼으며 조셉을 꾸짖었다. 조셉은 손에서만이 아니라 눈에서도 판을 놓쳐 버린 것이었다. 이 어린 선견자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은 컸으나 아직 고대의 기록을 지킬 만한 힘은 없었다.

조셉은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웠다. 모로나이는 그에게 이듬해에 다시 그곳으로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이제 시작될 위대한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천사가 떠나자, 조셉은 말없이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왔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다.³¹ 조셉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셉을 보기 무섭게 판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아니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보긴 한 거지?”

“네, 하지만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조셉 일세가 말했다. “내가 너였더라면 가져왔을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의 천사가 허락을 안 해 주셔서 못 가지고 온 거예요.”³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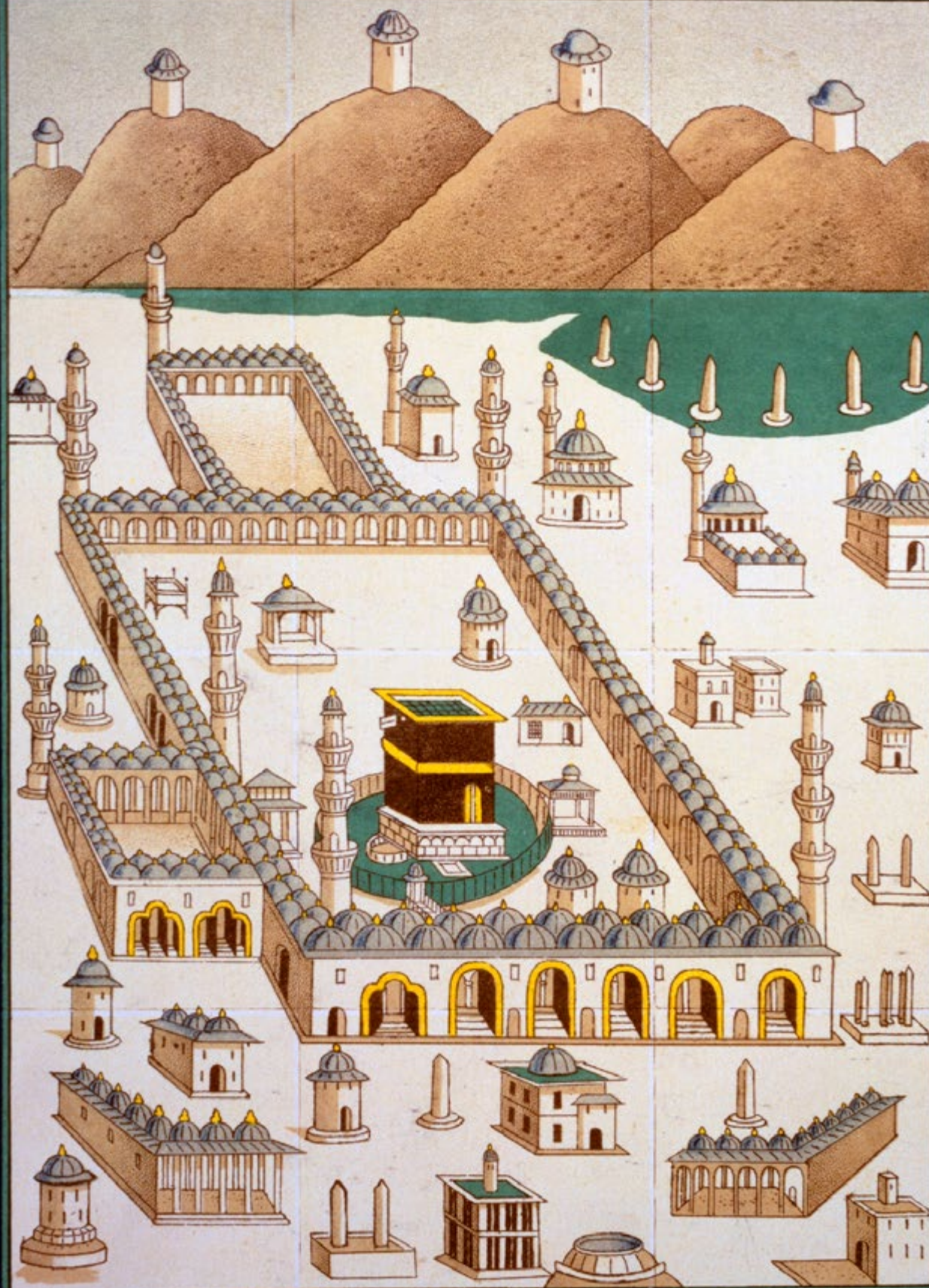
인용된 문헌은 전부 saints.lds.org/kor에서 영어로 열람할 수 있으며, 문헌의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5, in *JSP*, H1:22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1.
2. “Joseph Smith as Revelator and Translator,” in *JSP*, MRB:xxi;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0; 또한 모사이야서 8:17; 엘마서 37:6–7, 41; 교리와 성약 10:1 참조, 4 (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3.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8–49; Bushman, “Joseph Smith as Translator,” 242. 주제: 선견자의 돌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95; 또한 엘마서 37:23 참조.

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in *JSP*, H1:13–14; 조셉스미스 역사 1:28–2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in *JSP*, H1:218–20 (draft 2).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
7. 조셉스미스 역사, circa Summer 1832, 4, in *JSP*, H1:13–14; 조셉스미스 역사 1:29–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in *JSP*, H1:218–22 (draft 2); Pratt, *Interesting Account*, 6, in *JSP*, H1:524;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7–20. 주제: 모로나이 천사
8.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8.
9. 조셉스미스 역사 1:3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in *JSP*, H1:222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in *JSP*, H1:14;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65–67;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4. 주제: 선견자의 돌
10. 조셉스미스 역사 1:36–4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6, in *JSP*, H1:222–26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8–89.
11.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8–7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12. 조셉스미스 역사 1:42–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 in *JSP*, H1:226 (draft 2).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11];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9–80; Oliver Cowdery, “Letter V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July 1835, 1:156–57; 조셉스미스 역사 1:44–4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in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8–89.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see also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9.
1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2; 조셉스미스 역사 1:48–4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in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9.
1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9.
17.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주제: 보물 찾기
18.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조셉스미스 역사 1:5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in *JSP*, H1:230–32 (draft 2); see also Packer, “A Study of the Hill Cumorah,” 7–10.
19. 조셉스미스 역사 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in *JSP*, H1:232 (draft 2). 주제: 금판
20.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7, in *JSP*, H1:495.
21.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7–98; see also Pratt, *Interesting Account*, 10, in *JSP*, H1:527–29.
22.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8–99.
23. Knight, *Reminiscences*, 1;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9; 조셉스미스 역사 1:53–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in *JSP*, H1:232–34 (draft 2); see also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24. 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in *JSP*, J1:116–17.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2]; book 4, [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3.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87; see also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9; and Bushman, *Refinement of America*, 425–27.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2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3]–[5].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6]–[8]; “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7]; 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in *JSP*, J2:116–17.
3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5–86; Knight, *Reminiscences*, 1; 조셉스미스 역사 1:5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8; see also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3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



이슬람교^에

관한 이해

대니얼 시 피터슨

브리검 영 대학교 이슬람학 및 아랍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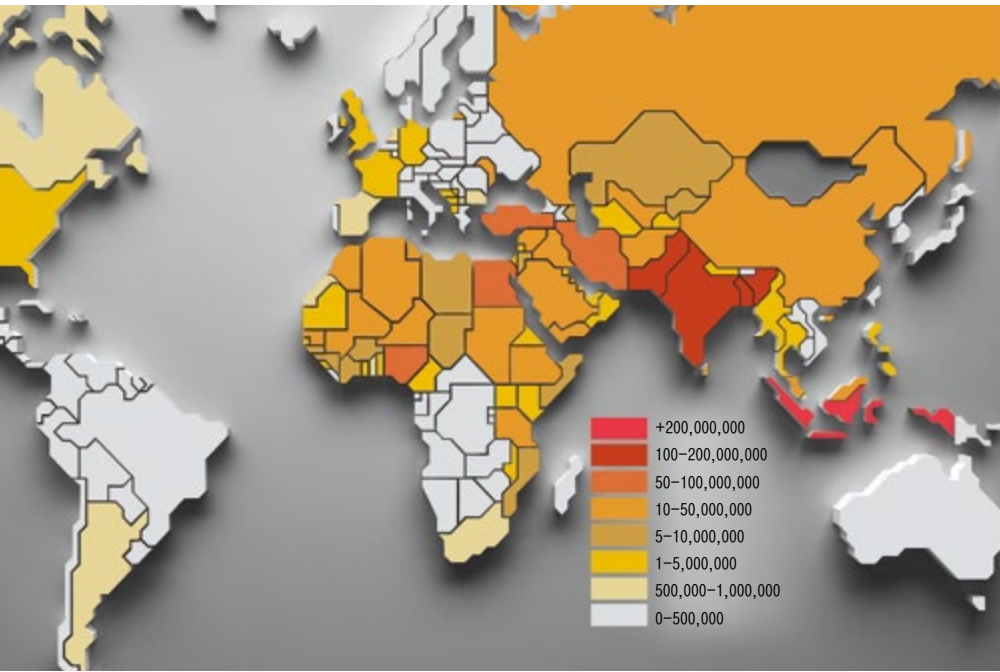
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교의 역사와 가르침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질문 은 이유로든 나쁜 이유로든, 이슬람교와 무슬림이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거의 없기에, 당연히 후기 성도를 비롯한 많은 비무슬림들은 그와 관련하여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무슬림 이웃과 공유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는 그들과 이웃과 동료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서기 610년, 중년의 아라비아 상인 마호메트는 고향인 메카의 언덕 위에 올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혼란에 관해 사색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기 백성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라는 부름을 시현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슬람교(Islam)로 알려진 종교의 발단이 되었다. 이슬람이란 단어는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Musli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띤다.

마호메트가 태어난 도시이자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인 메카의 카바(Kaaba)를 보여주는 19세기 모자이크.



전 세계 국가별 무슬림 분포, 단위: 백만 명(Pew Research Center, 2009)

이슬람교는 율법과 정의에 뿌리를 둔 종교적 정체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 정체성은 지금까지도 가장 두드러지고 중대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서기 632년에 마호메트가 사망하자, 추종자 가운데 누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의 뒤를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개의 주요 당파가 등장했다.² 이 중 다수파는 수니파(Sunni)로 불린다.(이들은 수나[sunna]를 따른다고 주장하며 계승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수나는 마호메트의 전통적 관행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마호메트의 사위인 알리의 주변 세력 사이에서 성장한 계파로, 시아트 알리(shi'at 'Ali, 알리파)라고 하며, 현재는 시아파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니파와 달리 시아파(시아족 또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알려짐)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마호메트를 계승할 권리가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인 알리와 알리의 후계자에게 있다고 믿는다.

이 두 계파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보다 더 큰 종교적 단합을 이루어 왔다. 또한, 서기 약 800년 이후 수 세기 동안 이슬람 문명은 과학, 의학, 수학, 철학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무슬림 교리와 의례의 근원

마호메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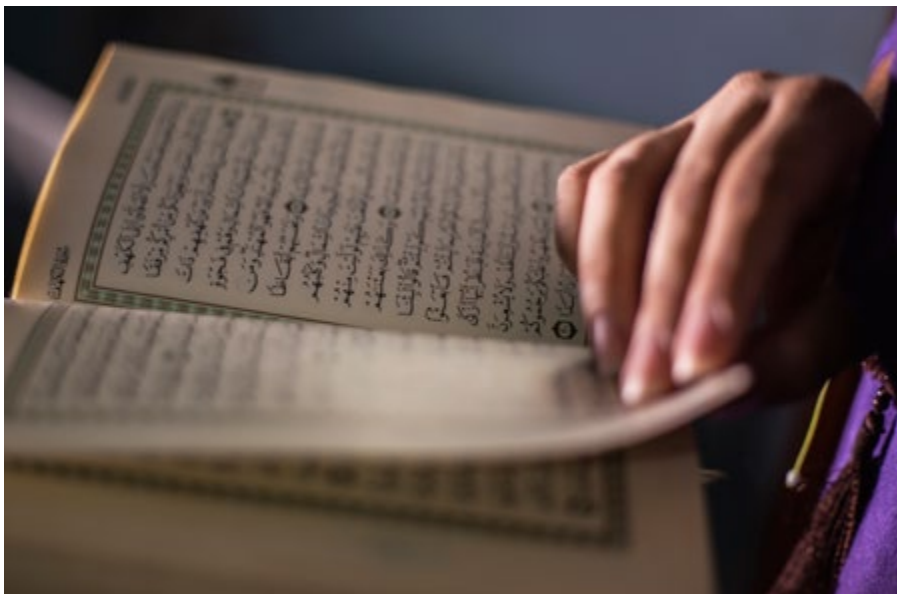
무슬림들은 코란을 알라께서 마호메트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간주한다.

그 후, 마호메트는 약 25년 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그 계시들을 먼저 고향 주민들에게 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회개를 외치고,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올바르게 대하도록 권하며, 죽은 자의 보편적인 부활과 종국에 있을 신의 심판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나 마호메트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조롱과 박해는 극심해졌고, 결국 그들은 북쪽으로 약 4일간 낙타를 타고 가면 나오는 메디나 마을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마호메트의 역할은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¹ 그는 단순히 설교하고 경고하던 사람에서 중요한 아라비아 마을의 입법자이자 판사,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는 아라비아반도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에 이른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조기에 형성되면서



그의 사후 10~20년 내에 코란이라는 책으로 편집되었다.(코란[Qur'an]: 아랍어 동사로 “읽는다” 또는 “암송한다”라는 의미의 *카라qara'a*에서 나온 말) 114개 장으로 구성된 코란은 마호메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교리와 성약과 마찬가지로 코란은 이야기책이 아니며, 무슬림은 이 책을 하나님께서 마호메트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여긴다.³

코란을 읽어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낯익은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코란에는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과, 악마의 유혹 및

해마다 약 200만 명의 무슬림이 메카로 순례를 떠난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그리고 뒤이어 온 선지자들(이들 중 대다수는 성경에도 등장함)의 부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코란에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 무슬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친구로 묘사된 아브라함은 이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⁴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으나 그 기록이 후에 분실되었다는 것이다.⁵) 모세와 바로왕,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도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신약전서에 19번 언급된 데 비해 코란에는 34차례나 그 이름이 등장한다.(사실, 마리아는 코란에서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여성이다.)

코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가르침은 *타우히드(Tawhid)*의 교리로, 그 낱말은 “일신론”을 뜻하며,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가 되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슬람교의 중심 원리 중 하나인데, 그 뜻은 전적으로 유일무이하며 신성한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다. 코란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분은 자손도 없으시고, 조상도 없으시니, 그분과 같으신 존재는 없도다.”⁶ 한편,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신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만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는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차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죄 없는 선지자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에서 중심 역할을 하기로 예정되었다고 믿는다. 코란에는 주님이 경건하게 자주 언급된다.

무슬림의 기본 가르침 및 의례

소위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은 코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마호메트의 말씀이라고 믿는 언행록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중 기본이 되는 이슬람교의 교리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간증

이슬람교에 보편적인 강령이 있다면, 그것은 *샤하다*(*shahada*)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 즉 “간증”이다. 이 용어는 특정 아랍어 문구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 문구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 “하나님[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샤하다는 이슬람교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심 어린 믿음으로 샤하다를 암송하면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아랍어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은 알라(Allah)이다. 알(*al-*, 영어로 하면 “the”)과 일라(*ilah*, 영어로 하면 신을 뜻하는 “god”)를 축약한 이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호칭으로, 히브리어의 엘로힘(*Elohim*)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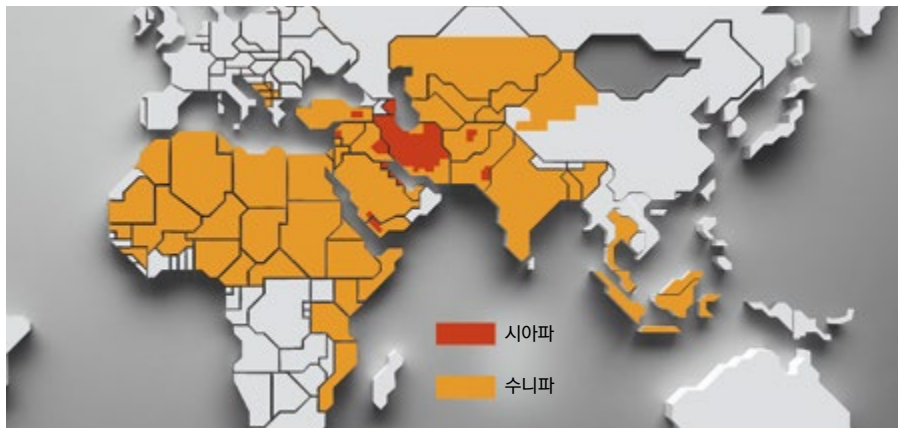
이슬람교에는 신권이 없으므로 신권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일 이슬람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샤하다를 고백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교의 침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슬람교에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단일 지도 체계가 없다는 점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테면, 전 세계 무슬림의 총 지도자가

없으므로 전체 이슬람 공동체를 대변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다. (거의 일반적으로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로 간주된다.) 이는 테러범이나 “이단자”를 파문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2. 기도

무슬림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은 무슬림들이 매일 특정 횟수, 즉 하루에 다섯 차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행위, 즉 *살라트*(*salat*)라고 하는 무슬림의 기도 의식을 알고 있다. 코란에서 정한 구절을 낭송하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은 신에 대한 겸손한 복종을 나타낸다. *두아*(*du'a*)라고 하는 더 자발적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굳이 엎드린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무슬림 남성은 금요일 정오 기도를 모스크(“엎드리는 곳”이라는 뜻의 아랍어, *masjid*에서 유래)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여성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받는다. 그들은 그곳에서 남녀가



전 세계 무슬림의 85% 이상이 수니파이다.(Pew Research Center 참조) 시아파는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란, 이라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는 소수파이다.

따로 무리를 지은 뒤 줄을 지어 사원의 이맘(imam, 아랍어로 “앞에서”를 뜻하는 *아맘마*[amama]에서 나온 말. 이맘은 이슬람의 지도자 명칭 중 하나임-옮김 이)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드리고 짧은 설교를 듣는다. 그러나 이들의 금요일을 우리의 안식일과 동등하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다수 무슬림 국가에서 “주말”은 *야움 알 줌마(yawm al-jum'a, “모임의 날”)* 혹은 금요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날은 일을 하더라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자선

*자카트(Zakat, “정화하다”라는 의미)*는 궁핍한 자와 사원 및 그 밖의 이슬람 단체를 지원하는 자선 기부를 말한다. 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무슬림의 총 재산의 2.5%로 산출하며, 별도로 정한 최소 금액 이상이면 된다.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정부 기관이 모금하고, 그외 다른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낸다.

4. 금식

해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라마단이 있는 음력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과 음료, 성관계를 삼간다. 무슬림들은 또한 그 달에 궁핍한 자들을 위한 특별 자선 활동과 코란을 읽는 일에 헌신한다.⁷

5. 순례

순례를 떠날 수 있는 건강과 자원이 있는 무슬림은 평생 한 번 이상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인 메디나 방문도 통상적으로 포함되기는 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신실한 무슬림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연차 대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성전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감동을 주는 행사이다.

몇 가지 현안

현재, 비무슬림의 이슬람교에 관한 관심사에서 초점이 되는 세 가지는 종교적 폭력, 이슬람의 법 또는 *샤리아(shari'a)* 법, 그리고 이슬람교의 여성에 대한 대우이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지하드(jihad)*라는 용어를 전적으로 “성스러운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사용해 왔으나, 이 단어는 사실 “단지

무슬림 여성들이 일몰 무렵 일일 라마단 금식을 끝낼 때 먹는 저녁 식사 이프타르(iftar)를 함께 하고 있다.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드에 대한 이해는 무슬림 법학자와 사상가들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표준이 되는 법적 자료에 따르면, 용인되는 군사적 지하드는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경고를 주어야 하며, 도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오늘날 일부 법학자와 다른 무슬림 사상가들은 이슬람 공동체에 유익이 되거나, 또는 더 큰 측면에서 이 세상을 개선할 실질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든 지하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호메트는 “큰 지하드”와 “작은 지하드”를 구별했다고 한다. 그는 후자를 전쟁으로 정의했다. 큰 지하드는 의롭게



일부 무슬림 여성은 정숙함 또는 알라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또는 자신이 이슬람교도라는 정체성을 눈에 보이게 표출하고자 히잡 머리 두건을 착용한다.



살고자 하는 개인적인 저항 및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의 이슬람 테러 집단은 자기들의 행위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와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그것은 단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반영하는 일일 뿐이다.⁸ 더 나아가, 전 세계 무슬림의 대다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 분자들과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⁹

일부 비무슬림에게는 샤리아(Shari'a)가 또 다른 관심사이다. 코란과 하디스(hadith)에서 비롯된 샤리아는 마호메트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말씀과 행위에서 나온 짧은 기록으로, 코란의 성구를 보완하고 설명할 뿐 아니라 무슬림에게 행동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일종의 무슬림 행동 규범이다.¹⁰ 샤리아에는 남녀의 복장을 통제하는 규율(히잡이나 두건)이 있다.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외 다른 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샤리아는 또한 개인위생, 기도 시간과 기도 내용, 결혼, 이혼 및 상속에 관한 규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서 무슬림이 샤리아로 통치되고 싶다고 밝힐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단순히 진정한 무슬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슬람교의 여성에 대한 대우를 생각할 때, 많은 비무슬림은 곧바로

일부다처제와 두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문화는 더욱 복잡하다. 코란의 많은 구절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선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성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슬람교 이전의 부족 문화나 그 밖의 기존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확실히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이 여성의 역할을 보는 시각은 국가마다, 심지어는 국가 내에서도 매우 상이하다.

이슬람교에 대한 후기 성도의 시각

후기 성도는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슬림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신앙개조 제11조)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841년에 나부 시의회의 후기 성도들은 “가톨릭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후기 성도, 퀘이커교, 성공회, 보편 구원론자, 일신론자, 회교(무슬림) 및 다른 모든 종파와 분파”에 “자유로운 관용과 동등한 특권”을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¹¹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컨대, 많은 기독교인이 마호메트를 적 그리스도로 비난하던 시대인 185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이 스미스(1817~1875) 장로와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는 이슬람교의 역사에 대해 놀라울 만큼 심오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도를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마호메트를 칭찬하는 내용의 긴 설교를 전하기도 했다. 스미스 장로는 마호메트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우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후기 성도들처럼 무슬림들도 자신들에 관하여 기록된 “정직한 역사를 얻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동정을 표했다. 뒤이어 설교에 나선 프랫 장로는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무슬림 사회의 도덕성 및 제도에 찬사를 보냈다.¹²

이슬람교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공식 성명은 1978년에 제일회장단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성명에서는 특히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호메트가 함께 언급되었으며, 스벤서 더블유 김볼, 앤 엘덴 태너,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빛을 일부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도덕적 진리를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을 계몽하고 개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져다주기 위함이다.”라고 썼다.¹³

공통점을 통해서

후기 성도와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맡으신 구주로서의 역할, 현대 선지자들의 부름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 반면에 공통점도 많다. 예컨대, 두 종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며, 개인적인 의로움과 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해야 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무슬림과 후기 성도는 가족의 강한 결속을 대단히 중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신성한 명령을 믿으며,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 후기 성도와 무슬림이 서로 나란히 신앙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점점 세속화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 지역 사회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종교적 믿음이 그저 갈등의 근원이나 심지어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됨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르지만, 코란에는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만일 신께서 뜻하셨다면, 너희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 것임이라. 그러나 신은 당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시나니, 그런즉, 서로 선을 행하기 위한 경주를

하라. 너희는 모두 신께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가 뜻을 달리했던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¹⁴ ■

주

1. 사실, 마호메트의 *히즈라(Hijra)*, 즉 메디나로 이주한 시기 622년은 무슬림(히즈리)력의 원년이며, 코란에 실린 계시는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로 분류된다.
2. 수 세기에 걸쳐 두 종파는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로도 사이가 멀어졌다.
3. 코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원래의 아랍어판만이 진정한 코란이자 진정한 성서로 간주된다.
4. 코란 4:125 참조.
5. 코란 53:36~62; 87:9~19 참조; 또한 Daniel C. Peterson, “News from Antiquity”, *Ensign*, Jan. 1994, 16~21 참조.
6. 코란 112:3~4. 코란의 영어 번역은 대니얼 시 피터슨의 번역임.
7. 코란의 표준판은 정확하게 이 목적을 위해 30개의 분량으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다.
8. 예컨대, Robert A. Pape, *Dying to Win: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2005); Graham E. Fuller, *A World without Islam* (2010); Robert A. Pape and James Feldman, *Cutting the Fuse: The Explosion of Global Suicide Terrorism and How to Stop It* (2010) 참조.
9. Charles Kurzman, *The Missing Martyrs: Why There Are So Few Muslim Terrorists* (2011) 참조; 또한 John L. Esposito and Dalia Mogahed,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2008); James Zogby, *Arab Voices: What They Are Saying to Us, and Why It Matters* (2010).
10. 샤리아는 실제로 유대교 랍비의 율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
11. Ordinance in Relation to Religious Societies, City of Nauvoo, [Illinois] headquart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arch 1, 1841.
12. *Journal of Discourses*, 3:28~42 참조.
13. 제일회장단 성명, 1978년 2월 15일. 리처드 벨의 *Introduction to the Qur'an* (1970) 개정판에서, 저명한 이슬람학자이자 성공회 신부인 더블유 몽고메리 와트는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 코란을 영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4. 코란 5:48; 2:48과 비교.



이곳이 그곳이다

아 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나라고 가르치셨다. 내가 1960년대 후반, 군에서 복무하던 당시 3년간 치러진 나이저리아 내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신앙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혼란을 느끼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1981년에 학업 차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2년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았지만, 관심이 가는 교회는 없었다. 어디에서도 영을 느낄 수 없었기에 나는 교회를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1984년, 아내 메이블이 나이저리아를 떠나 미국 생활에 합류하게 되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교회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졌다. 나이저리아에서 와 있던 한 친구는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줄은 몰랐지만,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내게 해 주었다.

그 후 나는 다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발견했다.

나는 처음으로 교회에 온 날 들었던 음성이 옳다는 것을 성전에서 여러 번 확인받았다.



성도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 일요일에 그곳에 직접 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성찬식 동안 회중은 경건하게 찬송가를 불렀고, 집사들은 빵과 물을 축복했으며, 예배 방식은 질서 정연하고 겸손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이 끝나고 복도로 걸어가 예배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시미언.” 영의 음성이었다. “이곳이 그곳이다.”

그때, 선교사 두 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한 뒤 몰몬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선교사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몰몬경은 전혀 모르지만 성경은 압니다.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원의 계획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나는 침례를 받았고, 얼마 후에 아내도 교회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는 워싱턴 D.C.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우리의 다섯 자녀도 우리에게 인봉되었다.

나는 성전에서 다른 여러 가지 계시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처음으로 교회에 온 날 들었던 “이곳이 그곳이다”라는 음성을 확인해 주는 계시를 여러 번 받았다. 성신의 그 말씀이 내게 미친 영향으로,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

시미언 은나, 나이저리아 아바

이러저러한 핑계로 점점 경전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거의 읽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에 다시 흥미가 생길까?

선 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삼 개월 만에 나는 경전을 읽는 일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 중에는 경전을 매일 읽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러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 요소가 생겨났다. 나는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거나 일이 너무 바빠거나, 너무 피곤했다. 이러저러한 핑계로 점점 경전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거의 읽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몰몬경을 폈다. 그때 읽은 구절에서 나는 경전에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야곱서 2:8)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이 구절을 숙고해 보면서 경전 공부를 게을리했을 때 내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고, 교회에 더욱 무관심해졌으며, 하나님에게서 더욱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겐 절실히 필요했다.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친구와 가족,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에 다시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도움이 된 세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첫째, 내 경우엔 경전 공부를 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아침에 경전 공부를 하면, 하루종일 그날 아침에 읽었던 교리와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경전은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나는 대학에 다니느라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므로 룸메이트와 친구들과 함께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더니 책임감도 생기고, 경전 공부가 열띤 복음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셋째, 경전 공부를 하면서 받은 영감이나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읽고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영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경전 공부를 다시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서, 오히려 시간과 활력이 더 많아져 해야 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전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이제 경전을 읽을 때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치유됨을 느낀다. ■

세라 키번, 미국 유타주



외숙모는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두 그루의 어린 망고나무 사이에 걸어 놓은 그물침대에 누워 계셨다.

“강으로 뛰어들어!”

어느 날, 할머니는 내게 당신이 만드신 음식을 외숙모 댁에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부탁하셨다. 때는 무더운 토요일 오후였고, 나는 심부름을 가는 대신 하고 싶은 일들이 무척 많았다. 내 대신 사촌들 중 한 명에게 부탁하시라고 말씀드려 봤지만, 할머니는 꼭 내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슬슬 할머니가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챙겨 들고 외숙모 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외숙모 댁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용건을 마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외숙모는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두 그루의 어린 망고나무 사이에 걸어 놓은 그물침대에 누워 계셨다. 외숙모네는 집 뒤로 강이 흐르는 곳이었고,

망고나무는 그 강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음식을 가지고 외숙모가 계신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침대 줄이 끊어졌고, 외숙모와 아기는 강물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영의 음성이 들렸다. “뛰어들어!”

나는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몇 초 만에 아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외숙모도 금세 물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다. 아기를 안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도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다.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고, 영의 음성에 순종한 덕분에 아기와 나는 모두 무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와 영감을 인식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외숙모 댁에 음식 심부름을 갔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도구로 쓰이려면 영의 속삭임을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

엘빈 제롬 라세다, 필리핀 팜팡가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

나는 오빠의 전화가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치셨대.”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어젯밤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질문이 끝도 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왜 엄마가 그렇게 가야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도 화가 났다! 그렇게 몇 주 동안 나는 분노 속에서 지냈다.

그러다 원망할 대상이 정해졌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탓이었다. 그분은 내게서 엄마를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 엄마는 내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채 떠나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당시에 나는 후기 성도는 아니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을 구하는 대신 그분께 등을 돌리고 내 인생에서 그분을 차단해 버렸다.

나는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집은 늘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엄마와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나의 신앙은 거의 메말라 가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왜 세상을 떠나셔야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약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후기 성도인 친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왔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영은 나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다. 복음에 대해 알게 될수록 이제 다시 나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다시 느껴졌다.

나는 2013년 5월에 침례를 받았다. 신앙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이제 더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받아들인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지만, 내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언젠가 엄마와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집에” 거할 수 있음을 안다. ■
주디 레셔, 미국 콜로라도주

라코토말랄라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로드로아에 있는 그의 마을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는 50km나 떨어진 도시인 안치라베에 있었다. 라코토말랄라와 그의 친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갈 방법을 찾았다.

현재 사로드로아에는 작은 집회소가 생겼고 일요일마다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인다. 라코토말랄라는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다. 네 명의 선교사가 사로드로아 지역에서 나왔으며 이곳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사진 촬영: 코디 벨

라코토말랄라 알폰세

마다가스카르 사로드로아

나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버스비가 없었다. 친구 라자핀드라바오나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교회에 내 자전거를 타고 가자고 했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사로드로아에서 안치라베까지 두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갔다. 페달을 밟다 지치면 내가 뒤에 타고 친구가 대신 페달을 밟았고 그러다 친구가 지치면 다시 내가 페달을 밟았다.

결국 라자핀드라바오나솔로의 가족과 나는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사로드로아에 지부가 생길 때까지 안치라베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 마침내 우리 동네에서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ids.org/go/41845에서 라코토말랄라와 라자핀드라바오나솔로의 사진을 더 볼 수 있다.

LDS.org에서 다른 신앙의 초상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ids.org/go/41844에서 사로드로아 지역의 교회 성장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Tristan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되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복음의 가르침, 계명, 신권 의식, 가족 관계, 선지자, 성진, 창조 의 아름다움, 심지어는 역경을 경험하는 기회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가 이생에서 행복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어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¹

사람들은 도처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말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은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교리와 성약 123:12)

그들은 어디에서 참되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적인

쾌락만을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물건을 사는 것,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세상의 명예와 찬사를 추구하는 것, 육체적 아름다움과 매력에 치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쾌락을 행복과 혼동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쾌락은 지속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영생으로 인도하는, 끈고 좁지만 잘 다져진 길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²

안타깝게도 행복은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행복은 단지 긍정적인 기분 그 이상의 것으로,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여 심신이 안녕한 상태, 즉, 의미와 만족감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³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이 경험에서 저 경험으로 건너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얻으려면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 장기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습관, 행동,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실상 행복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⁴

이제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충실하고 확고하게 옳은 길에 발을 내디디면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덕

행복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길은

덕입니다. 덕은 높은 도덕 표준에 근거한 생각과 행동의 방식입니다. 덕은 순결과 도덕적인 깨끗함을 포함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덕성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고요한 위엄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내리는 수천 개의 작은 결정과 행위가 쌓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흠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흠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 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깨끗한 양심이나 도덕적인 청결보다 더 가치 있는 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깨끗한 상태로 머물고, 또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느낌입니까!”⁵

의로움

행복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길은 의로움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래 지속하는 행복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의로운 성품에서 오는 것이며, 의로운 성품은 일관되게 의로운 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내리는 의로운 결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짓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⁶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의로운 생활을 권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들이 힘을 잃어 가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실함

행복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길은

충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신앙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신성한 목적과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생활하는 삶의 근원입니다. 신앙은 부지런함을 독려하는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려는 긍정적 태도와 열의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한 후 일어나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품고 행동합니다.

이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에 대하여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이것은 지상 생활에서 겪어야 할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리라 신뢰하면서 영의 인도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확고부동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을 능히 이겨 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부정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조차도 극복할 역량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

행복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길인 거룩함은 영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완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마음과 의향의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해 매일 어떻게 노력해야 그런 거룩한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자아를 발전시킵니다. ...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영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매일 자신의 영을 먹어야 합니다. ...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며 매일매일 자기의 잘못이나 계오름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⁷

거룩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이러한 성약들을 통해 우리가 지닌 능력과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맺은 의식과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성약을 맺는 성전을 짓는 것이 포함됩니다.(니파이후서 5:16, 27 참조)

이 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성을 발전시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레이맨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니파이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킴으로써 심히 번성하였습니다.(니파이후서 5:10 참조) 이것은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또 다른 중요 요소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⁸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영원하는 해답들, 그리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힘은 주님의 명에 기꺼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⁹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15, 21)

이타심과 사랑

행복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길은 이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살아 있는 영혼에 대한 염려와 관심, 그리고 자애가 포함됩니다. 사랑은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곧게 뻗은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축복합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마태복음 5:44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것,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 비참하게 만드는 것 등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온갖 역경을 넘어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2:37; 또한 신명기 6:5; 마가복음 12:30; 누가복음 10:27 참조)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자 주님의 계획”입니다.¹⁰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브리검 영 대학 하와이 졸업식 연설,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발췌.

주

1. 복음 주제, “행복”, topics.lds.org.
2.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Oct. 1919, 180.
3. “Happiness,” *Psychology Today*, psychologytoday.com/basics/happiness.
4. “Happiness,” *Psychology Today*
5.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6. 리차드 지 스코트, “의로운 선택을 함”, *리아호나*, 1995년 1월호, 33쪽, 번역 수정.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76, 178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4쪽.
9. 토마스 에스 몬슨,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2쪽.
10.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134.



lds.org/go/41849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본다.

결혼, 돈, 그리고 신앙

선데이 치부이케 오바시

나 는 가나 쿠마시에서 열린 청년 독신 대회에 참가했다. 이미 약혼한 상태였으므로 여자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기 부여가 필요했고 그 대회야말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나는 대회에서 청년 독신 성인과 일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은 장년 선교사인 콜 자매님이 성전 결혼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을 강하게 받았다.

토의가 끝날 때쯤 콜 자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준비로 꼭 사야 할 혼수품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어떻게 돈도 없이 신앙으로만 된다는 걸까?”

그 주 내내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신데 어떻게 제한을 받으실 수 있지?” 영이 그 답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축복을 청해야 한다.

그 뒤에 나는 이미 정해 놓았던 결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약혼녀인 프리실라에게 전화했다. 돈이 부족했으나,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기로 했다. 그러나 언제로 정해야 할지 몰랐다. 약혼녀가 감독님에게 워드 및 스테이크 달력에서 언제가 비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감독님이 괜찮다고 하신 두 날 중에서 우리는 2014년 9월 27일을 골랐다. 결혼식까지는 채 7주도 남지

결혼 전 나와 약혼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돈은 더 없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앙이었다.

않은 날짜였다!

프리실라가 물었다. “오밤(이그보어로 “내 사랑”이라는 뜻), 돈 좀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좀 있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봐요.” 그녀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약간 바꾸어서 말을 계속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길도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 주에 나는 몇 달 전에 한 일의 보수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프리실라는 내게 결혼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여성용 중고 가방을 사서 되팔았다. 사야 할 물건의 목록에서 몇 가지를 사고도 프리실라는 아직도 내가 준 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동안 나는 아무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약속받았던 일자리도 모두 퇴짜를 맞았다. 결혼까지 2주가 남아 있었고 사야 할 물건도 아직 남아 있었다. 약혼녀는 날짜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결혼식을 고작 이틀 앞두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2주 전에 한 일의 보수를 받게 된 것이었다. 나는 또한 신앙을 지니고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목표를 성취하도록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수표를 바꾸러 은행으로 갔다가 필요한 물건 중 아직도 사지 못한 것들을 사러 시장까지 갔다. 폭우는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한 일에 대한 하늘의 승인처럼 여겨졌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했다. 서로 결혼 서약을 교환하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내 평생 느껴 본 어떤 느낌과도 달랐다. 너무나도 뿌듯했고 그 순간부터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나중에 우리는 가나 아크라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

글쓴이는 가나 아산티 지역에 산다.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신앙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2013년 10월 연차 대회.



경전을 읽으세요

영을 느끼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는 경전을 펼쳐 경전 속의 인물들이 지닌 신앙을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저도 신앙이 생겨요. 어찌면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 짧게 했을지도 몰라요. 더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앙을 다시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크리스 비, 14세, 미국 오리건주



신앙의 씨앗을 키워 보세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신앙이 계속 잘 자라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아요. 신앙을 키우려면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해요. 경전을 읽고, 영적인 경험을 구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고,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 식으로, 제 신앙은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니까요. 인내해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엘리아스 비, 18세, 아르헨티나 멘도사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 신앙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그후에 함께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에밀리 시, 15세, 미국 콜로라도주

부모님께 여쭙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 외에도, 부모님께 어떻게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쭙어볼 수 있어요.

엘리아스 에스, 12세, 우루과이 파이산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경전을 읽어오

신앙이 약해진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는 기도했습니다.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기도한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셋째, 경전을 읽었습니다. 경전에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많아서 우리가 신앙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잭 제이, 14세, 미국 플로리다주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전쟁은 거의 태초부터 이 지구상에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 그러나 평강의 왕인 주님은 우리가 서로 전쟁을 벌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를 택하고,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며(모세서 7:33), 온 땅이 포악함으로 부패한 것을 보실 때 우신다.(창세기 6:11~13 참조) 땅에 전쟁을 초래하는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98:16) 그러나 나라들이 서로에게 맞서 무기를 들 때는, 멸망과 폭정과 억압에 맞서 가족과 나라와 자유를 방어함이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앨마서 43:47; 앨마서 46:12~13; 교리와 성약 134:11 참조) 그래서 자국의 군대에 복역하는 후기 성도들은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는 원리를 지키고 있다.(신앙개조 제12조)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든 비 힝클리, “전쟁과 평화”, 2003년 4월 연차 대회; 복음 주제 “전쟁”, topics.lds.org를 참조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제가 결정을 내리는 데 축복사의 축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5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기사 제출 혹은 피드백” 클릭)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모범과 회복의 패턴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기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간증과 회복의 열쇠

교 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증을 얻고 개종하는 것은 연구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인내로써 지속적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영이 임하도록 노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회복의 패턴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 주는 탁월한 예입니다. 오늘 회복의 사건들에 관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간증으로 인도되는 다음 단계들을 찾아보십시오. ...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대혼란

조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에 미국 버몬트주 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조셉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성직자는 성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는]” “대혼란”을 목격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6)

그 혼란은 몇 세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대배도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 … 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 2:3)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지 몇십 년 후, 그분의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고, 가르침은 변질되었으며, 신권은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에베소서 1:10)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지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

응답을 얻은 조셉

조셉(은) … 열네 살의 나이에 “[종교적] 의견의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만일 [이 교회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조셉 스미스—역사 1:10)

조셉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야고보의 지시에 따라 조셉은 집 근처 숲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이] … 내려”왔고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조셉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셉은 이들 신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조셉의 이름을 알고 계셨으며, 조셉의 기도에 기꺼이 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며 배도의 밤이 지나가고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조셉처럼 진리의 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조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전을 찾아보고 기도해야 [하며] … 겸손하게 되고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모로나이와 금판

첫번째 시현이 있는 후 3년 동안, 조셉은 [자신의 미약함과 불완전함으로 낙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잃거나 기도의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셉이 17세 되던 해인 1823년 9월 21일, 조셉은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허물[을] … 사해 주실 것과 …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9) 이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나 점점 퍼져 “마침내 [그의]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30절)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계셨습니다.(31절) 그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금판에 씌어진” 고대 기록에 대해 얘기해 주었으며, 그 기록은 번역되어 몰몬경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 복음의 충만함이 … 실려 있습니다.(33~34절 참조) … 조셉은 집 근처[에 있는] … 구모라라고 불리는 산에 묻혀 있던 그 기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조셉은 금판을 발견했지만 그 금판들은 아직 세상에 나올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그때로부터 4년 동안 매년 같은 날에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명했습니다.(52~53절) 조셉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매년 그는 그 언덕으로 갔고 그곳에서 모로나이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었습니다.(54절) …

1827년 9월 22일, 스물한 살의 조셉은 금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과 둠뎀이라 불리는 고대의 번역 기구를 받았습니다. … 조셉은 성신의 인도로 이 신성한 번역기를 사용하여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

회복이 시작되다

스물세 살의 조셉이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금판을 번역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관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 그들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조셉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1829년 5월 15일,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께 여쭙어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 침례 요한이 “빛 구름”에 싸여 나타났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68) 그는 생전에 구주께 침례를 베풀었[고,] …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요한은] …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 [각자]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편; 조셉 스미스—역사 1:68~69 참조) … 1829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조셉과 올리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몰몬경의 번역 또한 그 해

6월에 끝났으며 … 1830년 3월 26일에 출판되었습니다. … [며칠]이 지난 4월 6일, 교회가 …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고대의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회복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이] 1836년 3월 27일에 … 헌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3일에는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기도에 뒤이어 조셉과 올리버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 모세와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도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신권]의 열쇠[를] 조셉에게 맡겼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

형제 자매 여러분,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십니까? 회복의 모든 주요 사건들, 즉 첫번째 시현, 모로나이의 나타나심, 몰몬경의 출현, 신권의 회복, 그리고

신성한 성전 헌납 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등은 모두가 기도에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

[많은 경우에] 저는 마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저는 몰몬경에서 모로나이가 주신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

조셉 스미스의 모범과 회복의 패턴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 믿으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니파이전서 15:11) ■

200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이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다. 그림의 일부, 윌터 레인.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윌터 레인

무엇을, 왜, 어떻게:

회복에 관한 분석

경륜의 시대

선지자는 경륜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를 인도한다. 이 시기에 (1) 하나님은 지상에 적어도 한 명의 승인된 신권 지도자를 두시고 (2) 이 지도자, 즉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직접 배운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한다.

경전 덕분에 우리는 여러 경륜의 시대에 관하여 알고 있다. 주요 경륜의 시대로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의 시대가 있다. 주님은 이러한 선지자를 각각 불러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셨다.

페이스 서덜린 블랙허스트

교회 잡지

여러분이 친구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다고 해 보자.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족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그때 아빠가 문자를 보내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본다.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해 준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지상에서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시지는 않지만, 하늘의 본향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전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삽화: 벤 시몬스

복음을 가르치려면, 배도와 경륜의 시대,
회복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배도

배도=사악함. 개인 또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선지자를 거절하고, 죄악에 빠져들 때, 그들은 배도하는 것이다.

회복

회복이란 어떤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회복은 기존의 것을 변경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낡은 집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원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벽난로를 새로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집을 변경하는 것이지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배도의 시기에



사라졌으므로, 회복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참된 교회가 부재한 가운데 살았었다. 그래서 주님은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선지자 조셉을 통해 자신의 교회와 복음을 회복하셨다.(이사야 2:1~3; 29:13~14; 사도행전 3:19~21; 요한계시록 14:6~7; 니파이후서 3:3~1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복음 안에 머물렀는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태초부터 필멸의 사람들이 똑같이 마주해 왔던, 다음 질문에 대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선지자를 따르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아담

아담은 진정한 개혁자였다. 그는 지상에 온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첫 번째 선지자였다! 그는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태초에도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서 그들 자신의 지혜를 구하였으며” 진리를 거절했다.(모세서 6:28)

경륜의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엘마서 13:3; 또한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권 열쇠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다. 여기에 선지자들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들에 대해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에녹

도시 전체가 하늘로 들리워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에녹이 세운 시온 성의 백성들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들리워졌다.(모세서 7:23 참조)

노아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에 관해 잘 알 것이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이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덕에 홍수에서 살아남았다.(창세기 7장; 모세서 8장 참조) 하지만 노아가 10살에 신권을 받았다는 것과(교리와 성약 107:52 참조), “거인들이 ... 노아를 찾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가?(모세서 8:18)

아브라함

사악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칠 뻔했지만 천사가 그를 구해 주었다.(아브라함서 1장 참조) 그는 몇 가지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며, 그중에는 전세의 삶에 관한 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 회원들은 그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성약은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아브라함서 2~5장 참조.)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 그는 “자기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부지런히 힘썼으나,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교리와 성약 84:23~24) 사실 그들은 배도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지상에 그분의 교회도 세우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적, 육체적 사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오늘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는 신권 권세의 근원이다.



대배도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했고 대부분의 사도를 죽이기까지 했다.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복음의 충만함이 땅에서 사라졌다. 세상은 영적인 암흑에 빠졌다.(이사야 60:2 참조)

-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은 구원 의식, 성전 축복, 혹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다.
- 귀중한 진리가 성경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이 가르쳐졌다.
- 구원의 의식 일부가 변경되거나 부정확하게 가르쳐졌다.(이사야 24:5 참조)
- 이 배도로 인해 결국 여러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종교 개혁

대배도 기간에 유럽에 살았던 일부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개혁자들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진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많은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복음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조셉 스미스

그래서 복음의 충만함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조셉 스미스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하늘의 사자들이 필요한 신권 열쇠를 모두 그에게 회복해 주어(교리와 성약 27:8~13; 110편; 128:18~21 참조), 이 시기를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만들어 주었다.(교리와 성약 138:48) 이 시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에 후기라고도 알려져 있다.

현 위치

회복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회복이라는 축복이 있다. 그렇다, 바로 여러분에게 말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어 선지자와 사도가 교회를 이끈다.
-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기타 현대의 계시가 한때 잃어버렸던 귀중한 진리를 회복해 주었다.(니파이후서 27장 참조)
- 조셉 스미스는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 신권을(교리와 성약 13장 참조),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128:20 참조)
- 승인된 신권 소유자가 구원 의식을 올바르게 집행한다.
- 그리고 다시는 배도를 통해 진리를 잃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다니엘 2:44 참조)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과 임재하심을 우리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세라 헨스

성 경과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구주에 관한 모든 것을 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표준 경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공부하라는 도전 과제를 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그 과제를 완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이
배웠을 뿐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에 관해 배울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와 목적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주님의
평안을 초대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읽어 보십시오. (1)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복음 공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줍니까?

구주를 알아 가며

저는 열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감사를 드리러 온 문둥병자에게 큰 사랑을 보여 주셨거든요.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7:19; 11~19절 참조) 저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참 좋아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비극 때문에 모두들 평안과 위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저는 세미나리 공부를 통해서 힘과 평안을 찾았어요. 세미나리 교사님은 경전과 복음을 모두에게 와닿게 가르쳐 주세요. 세미나리 교실과 보통 교실을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차이는 정말 엄청나요. 세미나리에는 평안을 가져오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가브리엘 에스, 16세, 미국 콜로라도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엘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어요.(엘마서 32:18~43 참조) 엘마가 조랭인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신앙은 씨앗과 같아요. 신앙은 실제로 보지 않고도 무언가가 참되다고 믿는 것이에요.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듣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자라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저는 차분하게 되고, 마음이 굳건해졌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감정도 얻게 되었어요.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사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이러한 지식 덕분에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마리아 디, 17세, 스페인 과달라하라

저는 제3니파이 17장에 나오는,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시고 어린이들에게 그분께 오라고 권하시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주님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보내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게 보여 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의





저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오셔서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죠.(제3니파이 17장 참조) 정말 멋지고 감명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 좋아요. 어린이들은 정말 순수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구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처럼, 구주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과,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평안을 느낍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 암몬, 엘마 2세 등 물문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회개하였기에 오늘날에도 배울 바가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위안이 됩니다.

알리나 티, 18세, 미국 오리건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앉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올해 매일 한 페이지씩 경전 읽기에 도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경전 읽는 것을 고대하게 되었어요. 시간을 내어 경전에 있는 말씀과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관해 배우면서 그분들께 더 가까워졌고요. 덕분에 제 인생에 커다란 평안이 찾아왔어요.

애나 시, 17세, 미국 몬태나주

예수님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예요.(요한복음 2:1~11 참조) 이 이야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여성, 특히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적이 봉사의 행위이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와 경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은 제게 평안을 가져다주었어요. 제가 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앤 알, 17세, 호주 빅토리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2017년 4월 연차 대회.

저는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마가복음 10:17~22 참조) 그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세상의 소유물을 모두 팔아버리라는 요구는 누구에게든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하나님을 소유물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생에서 얻는 어떤 돈이나 소유물보다 분명히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더 큰 지혜와 이해는 물론 평안과 위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전 공부의 힘을 그 즉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경전 읽기는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제가 영을 느끼고 주님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위편 시, 19세, 타이완 타이중

그리스도께서 죽어 가는 어린 소녀를 보러 가시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주님의 옷을 만지고 그것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만졌음을 깨달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돌아보시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누가복음 8:43~48 참조)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시는 중이었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시간을 내십니다.

저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발레 수업 또는 다른 볼일들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 일을 모두 하는 동안, 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거나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거나 기도할 때 평안을 느낍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잠시 그런 평안과 여유를 느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구주와 더 가까워지고 복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

조이 비, 17세, 미국 유타주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러셀 엠 넬슨,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전 세계 청년 독신을 위한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2017년 4월 연차 대회; “구주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월호, 56~59쪽.



회복이 내게 의미하는 것

교회의 회복은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 후, 다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죠. 이 카드들을 읽고 오려서 종이에 붙인 뒤, 짝 맞추기 게임을 해 보세요.

 <p>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므로 ...</p>	 <p>... 나는 그분들도 나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요!</p>
 <p>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번역했으므로 ...</p>	 <p>... 나는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p>
 <p>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으므로 ...</p>	 <p>...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받을 수 있어요!</p>
 <p>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으므로 ...</p>	 <p>... 나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p>



교회가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으므로 ...



... 나는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에머 스미스가
교회의 첫 번째
찬송가 책에
실을 찬송가를
모았으므로 ...



... 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아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족을
인봉할 열쇠를
주었으므로 ...



...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초기
성도들에게
수입의 10퍼센트를
십일조로 내라고
명하셨으므로 ...



... 나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낼 수
있어요!



오렐리아 로저스가
이웃에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초등 협회를
시작하였으므로 ...



... 나는 초등학교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종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며 구주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를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02쪽에서 발췌.



발레리 브이
코르돈 장로
칠십인 정원회

놀라운 교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제가 과테말라에서 자라던 시절, 우리 가족은 스포츠 팀
유니폼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곧잘 혼이 났습니다. 물건을 자주
고장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아버지는 제게
재봉틀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일에 보수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돈으로 뭘 할 셈이니?”
저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내고 선교사
기금을 저축할 거예요.”

제가 13살 무렵이었을 때, 사업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재봉틀을 많이 처분해야 했고, 직원도 200명에서
5명 남짓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집 차고에서
일했습니다.

늘 십일조를 바치면서도, 저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놀라운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금 있는 돈으로는 십일조를 내든지
음식을 사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하기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요일에 저는 아버지가 지부 회장님에게 십일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십일조를 내는 쪽을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기뻐지만,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먹지요?

다음 날 아침,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유니폼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주문대로 옷을 다 만들고 나면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니폼을 만들기도 전에 그날 바로
아버지에게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 후에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축복입니다! ■

아부엘로의 구둣방

레이 골드럽
실화에 근거함

“미안해요”라고 말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아요.”(Children’s Songbook, 98)

미겔은 아부엘로(할아버지)의 구둣방 문을 열었어요. 아부엘로가 일하시던 가죽 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그 냄새는 미겔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 중의 하나였지요.

“안녕하세요, 아부엘로!”

아부엘로는 무릎을 꿇고 손님의 발을 종이에 대고 그리고 계셨어요. 제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아부엘로는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미겔은 작업 의자에 앉았어요. 잘라 놓은 가죽 더미들이 보였어요. 미겔은 아부엘로가 망치와 펜치를 써서 그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실지 상상해 보았어요.

그 도구들을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아부엘로는 미겔이 정리를 도와드릴 때마다 항상 과자를 하나씩 주셨어요.

미겔은 마침 배가 고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부엘로는 계속 바쁘실 것 같았어요. “어쩌면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미겔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산대 아래 있는 과자 단지로 손을 뻗었지요. 칠리 가루를 묻힌 매콤달콤한 과자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미겔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였죠. 그런데 단지를 열었을 때, 마음이 살짝 불편했어요. 하지만 과자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미겔은 얼른 하나를 입안에 넣었어요.

곧 손님이 가셨어요. 아부엘로는 가죽 한 조각을 골라 어떤 용액에 담그셨어요. 그렇게 하면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발처럼 되어야
한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겔은 먹던 과자를 최대한 빨리 씹어서 삼켰어요. 그리고 아부엘로에게 갔어요.

“안녕, 애야!” 아부엘로가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셨습니다. “나를 보러 와 줘서 기쁘구나.”

미겔은 아부엘로를 껴안았어요. 과자를 하나 먹은 사실을 아부엘로가 모르기를 바라면서요. 미겔은 그 걱정은 잊어 버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바빠 보이시네요.” 가죽 더미를 가리키며 미겔이 말했어요. “도와 드릴까요?”

“그러렴! 그 실 좀 건네주겠니?”

미겔은 긴 실뭉치로 손을 뻗어서 실 한 가닥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보기보다 실은 무척 질겼어요.

“우와, 실 참 튼튼한데요.”

아부엘로가 꺾꺾 웃으셨어요. “닿고 닿을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아부엘로는 가죽에 바느질을 하며 실을 잡아당기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가끔 “지혜로운 아부엘로 표정”이라고 부르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발처럼 되어야 한단다.” 아부엘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겔은 가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음, 그런가요?”

“그래, 정말 그래야 한단다. 곳곳하게 남아 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사탄이 유혹해도 무너지지 않지.”

아까 먹었던 빨간 과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겔은 아부엘로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부엘로는 선반에서 낡은 신발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 큰 구멍 보이지?”

미겔의 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구멍이었어요. “네.”

“이것도 한때는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작은 구멍이었단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놔두니까, 이제는 고치기가 훨씬 어려워졌지. 나쁜 습관이나 나쁜 선택은 그 구멍 같은 것이라네.”

빨리 고치는 게 제일 좋은 법이지.”

아부엘로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고, 지혜로운 아부엘로 표정은 다시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부엘로가 일하시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겔은 내내 빨간 막대 과자 생각이 났어요.

일이 끝나자, 미겔은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아부엘로는 과자 단지를 꺼내려 손을 뻗으셨어요.

미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과자를 한 개 먹었어요!” 미겔이 불쑥 말했어요.

아부엘로는 단지를 내려놓으셨어요. “뭐라고?”

미겔은 물어보지도 않고 과자를 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아부엘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아부엘로는 미겔을 꼭 안아 주셨어요. 미겔은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직하게 말해 줘서 고맙구나. 그게 내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단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미겔은 아부엘로의 새 구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게, 평생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좋은 느낌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수도 요금을 내려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선 아저씨가 돈을 잔뜩 떨어뜨렸는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나는 얼른 돈을 주워 아저씨께 드렸어요. 아저씨는 “정말 고맙구나”라고 하시며, 다른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나는 그 느낌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브리애나 시, 9세, 미국 아이다호주

용기를 내서 친절을 베푸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저의 빛을 비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예요.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클라우디아의 오빠, 타일러

저는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 줘요. 우리 반에 학습 장애를 가진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애를 놀리면 그 애 편이 되어 줘요. 수업 시간에 그 애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그 애가 반에서 소속감을 느낀 게 올해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꼬마 곰돌이

우리 선생님네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은 아주 슬퍼하셨어요.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는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카드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삼촌을 만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슬플 때 힘내시라고 제 특별한 꼬마 곰돌이 인형도 드렸어요.



노래 부르기와 성신
저는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면 성신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성신은 제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주셔요.

운이 좋은 친구

제 이웃인 올리비아는 걷기도 말하기도 듣기도 힘들어 해요. 올리비아의 엄마는 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올리비아는 운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운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용기를 내어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 용기를 내어 이웃을 도우세요.
- 용기를 내어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세요.
- 용기를 내어 노래를 부르세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추나요? 별 그림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아서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가족이 독일에 살았을 때, 우리는 마을로 폭스마쉬를 갔어요. 폭스마쉬는 친구들과 이웃이 자연에서 함께 걸으면서 즐기는 활동이에요. 부모님이 친구 한 명과 함께 일행보다 먼저 가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긴 산책로로 출발했어요.

몇 분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였어요. 나는 친구에게 거기서 가족들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곧 친구도, 친구의 가족도 더는 안 보였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에 나밖에 없어서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도록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숲 저편에서, 우리 아빠는 성신이 “아들을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대요. 아빠는 내가 얼마나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느꼈고,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엄마에게 나를 찾으러 간다고 말했어요. 몇 분 후에 아빠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산책로를 뛰어 올라와 나를 찾으셨어요. 나는 아빠를 만나서 정말 기뻐했어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것에 관해 아빠가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기뻐요. 그분은 내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

미아가 될 뻔했어요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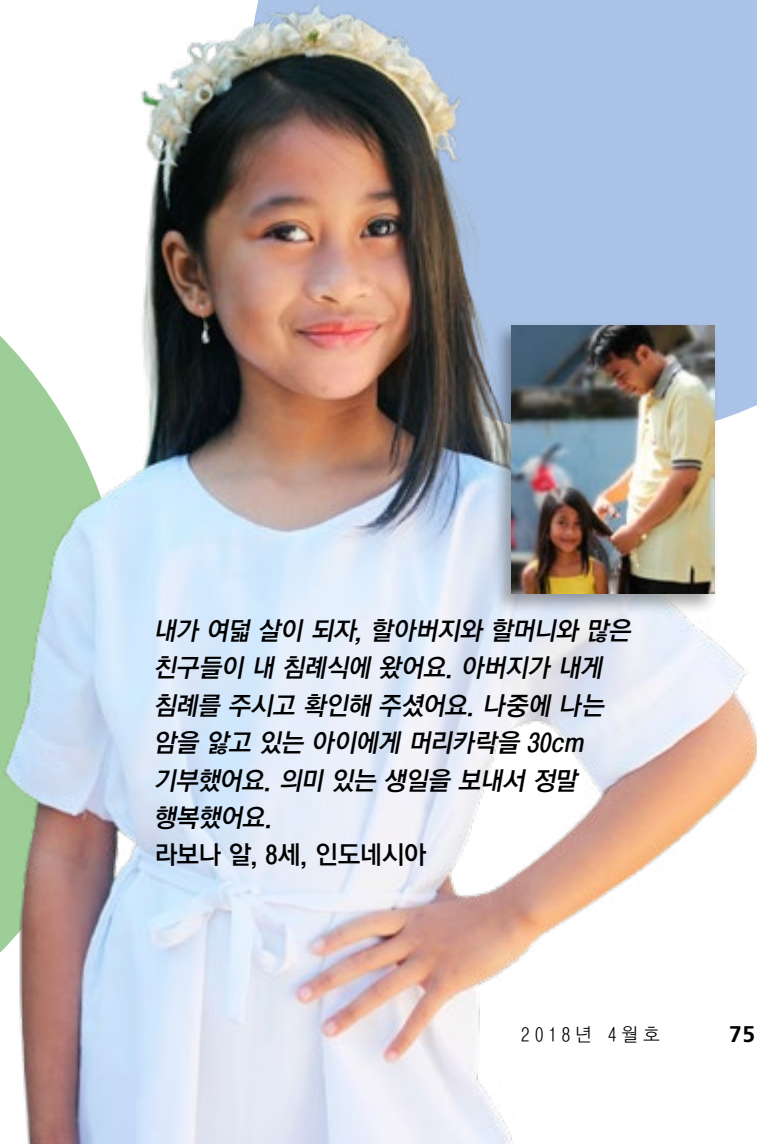
나는 침례식에서 긴장이 되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자 마음 가득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어요.
토마스 비, 8세, 우루과이



우리는 꼬마 여동생 로라를 우리 가족으로 인봉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중국 홍콩 성전까지 왔어요. 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영을 느꼈어요.
로사 피, 9세, 캄보디아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선반에 게임을 쏙서 넣어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곧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 빛을 비추었어요.
위니 더블유, 10세, 캐나다



내가 여덟 살이 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많은 친구들이 내 침례식에 왔어요. 아버지가 내게 침례를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나중에 나는 암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머리카락을 30cm 기부했어요.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어요.
라보나 알, 8세, 인도네시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김웹 리드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아름다운 채색옷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제들을 이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화가 났어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요셉은 선한 선택을 했어요.



힘든 시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이끌게 되었어요.



나는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실 거예요. ■

창세기 37~41장에서 발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또는 길입니다.

나 사렛 예수의 참된 정체성과 인생에 대한 중대한 철학적 논쟁 및 질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부활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말하는 부활을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신성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평범한 인간은 죽은 후에 생명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단지 목수, 교사, 랍비, 또는 선지자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곧 아버지의 독생자이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실재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방문하신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천사들이 말했듯이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신앙개조 제10조]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세상의 구속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 전능, 자비심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혹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또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재하므로,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로 상상이나 심리적 발명 이상의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으며,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도덕적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회개는 가능하며,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구주와 같은 일을 하며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분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분의 기적은 실재였습니다. 그분의 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닌]” 실제적인 힘이며,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교리와 성약 84:19~20]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며, 비록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져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욥기 19:26 참조] ■

201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